'돌싱녀'로 돌아온 새색시

metro
메트로 2014년 2월 25일 화요일 www.metroseoul.co.kr

윤석민 다음달 조 데뷔전

항공사엔 너무 가뿐한 과징금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마스크 쓴 서울 수도권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24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를 걷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날 서울을 비롯해 경기·충청·전라북도 등 전국적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나쁨(121~200㎍/㎥)수준으로 악화돼 환경당국은 노약자·호흡기 환자 및 심혈관 환자의 바깥 활동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 ⑧ 뿌리 깊은 항공 운임 담합

지난 1월 LG그룹 계열사 4곳이 "국내외 항공사 12곳으로부터 운임 담합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억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기업은 LG전자와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생명과학 등 LG그룹 4개 계열사. 소송 대상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항사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에어프랑스 등 12곳이다. 흔치 않은 기업 간 담합 소송이라는 점에서 LG그룹의 소송은 경제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임의택기자 ferrari@metroseoul.co.kr

이익에 비하면 역수 미미하고 경영진엔 책임 안 물어
LG계열사 소송결과 관심…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항공사들의 운임 담합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다. 자주 걸리고 있으나 계속 반복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0~2005년 사이에 미국으로 가는 항공화물의 요금, 연료 할증비, 전쟁위험 부담금, 세관 통과비용, 커미션 등을 담합한 행위로 스위스 경쟁위원회에 일부 항공사와 함께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에어프랑스-KLM의 벌금 액수가 390만 스위스프랑(약 45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지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과징금이 대폭 줄었고, 아메리칸 에어가 220만 스위스프랑(약 25억 7000만여 원), 유나이티드 에어가 210만 스위스 프랑(약 24억5000여만원) 등의 벌금을 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브리티시 에어, 미국 아틀라스 에어, SAS, 싱가포르 항공과 함께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을 내게 됐다.

앞서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6개국 21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화물 운임 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항공사들은 공정위의 담합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적발되면 합의하고 쉬쉬

이처럼 잦은 담합 적발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의 위법 행위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1월 대한항공은 화물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당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인 화물업체들에 1억1150만 달러(약 118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대한항공 측은 "원고 측과 합의하고 법원에 합의 예비 승인을 신청한 상태"라며 "운임 담합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투는 대신 소송의 원만하고 조속한 종결을 위해 양측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를 경쟁사들과 짜고 올린 혐의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화물 등 운임 담합으로 이미 미국 정부에 벌금 3억 달러를 낸 바 있다.

대한항공은 미주 노선 여객기 항공료 담합 혐의로도 미국에서 승객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해 6500만 달러(약 727억원)를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한 상태다.

◆수출기업 소송 이어질 가능성도

앞서 언급한 LG그룹의 소송이 몰고 올 파장은 크다. 항공사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 날 경우 항공 수출이 많은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몇몇 대기업들은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담합 사건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만으로는 근절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LG그룹 계열사들이 담합 사건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선 것에 대해 환영하며, 최근 담합 사건에 대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소송 수행 능력을 갖춘 기업의 대응만이 아니라, 소액이지만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수단으로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되는 제재에도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담합으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을 상쇄하고도 남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담합을 주도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회사 경영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 소재를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면에 계속>

서울메트로 40년간 400억명 실어날랐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이 오는 26일 승객 수가 400억 명을 돌파한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 39년6개월 만에 수송 인원 400억 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세계 인구의 5.6배에 달하는 수치로, 400억 명이 1m 거리를 두고 줄을 서면 지구를 1000바퀴, 지구와 달 사이를 52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현재 1~4호선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은 418만 명, 하루 운행 거리는 5万8km로 서울에서 부산을 68차례 왕복한 거리와 같다. 39년6개월 동안 지하철 1~4호선의 운행 거리는 6억2236만km에 달한다.

지난해 지하철 1~4호선 역 가운데 승객이 가장 많은 곳은 2호선 강남역으로 하루 평균 13만5595명이 이용했다. 1호선 서울역(10만6237명), 2호선 홍대입구역(9만7728명), 2호선 잠실역(9만7442명), 1호선 신도림역(9만5010명)이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이를 기념해 26일 1~4호선 첫차를 이용하는 시민 중 무작위로 16명을 뽑아 교통카드(4만5000원 상당)를 증정한다. /이재은기자 mkem@

'제4이동' 이번엔 뜰까

기자 수첩
이 재 영
<경제산업부 기자>

제4이동통신이 이번엔 탄생할 수 있을까.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까지 제4이동용 2.5GHz 주파수 할당 공고를 받고 있다. 현재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지난해 11월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 지난달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본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부터 4차례 도전에 번번이 실패한 KMI는 이번에야말로 제4이동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포기 의사를 밝히며 KMI의 사업권 획득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제4이동의 등장이 시장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이통 3사는 견제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일부 통신 사업자가 제4이동 출범을 막기 위해 본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예상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KMI 관계자는 "일부 이통사가 지나치게 방해 공작을 펼치려 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꼴"이라며 "대기업이라면 요금 경쟁, 서비스 품질 경쟁 등으로 소비자 안목과 변별력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고 항변했다.

이제 최종 선택은 미래부에 달렸다. 이통 3사는 건전한 통신시장 생태계를 위해, 미래부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제4이동의 탄생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선거의 꽃 유권자 24일 대전 서구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대전 10대 공약 어젠다 전달식' 이시 참석자들이 화가 박복신 씨가 그린 '선거의 꽃 유권자'라는 대형 문자그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개 필요한 볼트 2개만

경주 붕괴 리조트 설계도와 달리 시공·용도변경 않고 집회시설 사용

113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가 일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안전사고 수사본부는 24일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한 결과 보조 기둥 1개에서 볼트 숫자가 부족했다"며 "도면에는 보조 기둥과 지면이 맞닿는 부분에 볼트 4개를 체결하도록 돼 있는데 2개밖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영석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가장 큰 하중을 받는 천장 중앙부가 꺼이면서 건물이 V자로 무너졌다. 나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거나 구조물 단면이 하중을 견딜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사고가 난 체육관 건물은 2009년 9월 준공 당시 운동시설로 허가가 났지만, 용도 변경 없이 무단으로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집회시설로 사용되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체육관 건물이 경량 철구조물의 임시건물 형태인데도 하중을 많이 받는 조명시설을 설치해 집회와 공연시설로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PEB공법(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공법)을 사용한 건물은 3.3㎡당 80만원 이상 소요되지만, 마우나오션리조트의 경우 3.3㎡당 41만원의 공사비만 지불됐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다르게 시공한 부분이 경미한 사안"이라며 "붕괴사고와 중대한 관련성이 있는지는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붕괴사고로 숨진 고 박주현양의 아버지는 경찰 수사본부와 유족들에게 사고 관계자들을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복지부 장관의 컬링 게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소치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휠체어컬링 대표팀을 방문해 컬링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세 제보의 힘… 국세청 지난해 1조3000억원 추징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 제보와 차명계좌 신고를 통해 각각 1조3211억원, 11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지급률도 추징액의 2~5%에서 5~15%로 인상했다. 또 지급 기준도 기존 1억원 이상 세금 징수에서 5000만원 이상 징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탈세 제보 건수는 1만8770건으로 전년 1만1087건 대비 69.3% 증가했고,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액도 2012년 5224억원에서 지난해 1조3211억원으로 152.9% 올랐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 가운데 해외 국적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상속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제보자에게 억대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단체복 구입 대금을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했다는 신고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소득세와 증여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이들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했다.

/윤정원기자 ks@

"담합 걸려도 배상하면 그만" 기업 마인드 바꿔어야

<1면에서 계속>

작년 LIG건설 및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 발행 사건이나 최근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건으로 대량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에 비춰 볼 때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절실하다. 작년에 발표된 국정과제 보고서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해 공정거래(부당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 도입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증권, 제조물 책임, 공정거래, 환경, 금융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형태의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면 새롭게 마련해 시행하면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담합하다가 걸려도 배상해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같은 행위는 반복될 뿐이다.

/정경호기자 [illegible]

"기초선거 공천 않겠다"…허 찌른 안철수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24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관련,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저를 포함한 3명의 후보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단체 정당 공천 폐지를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며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여당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공약 이행 대신 상향식 공천이라는 동문서답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대선 공약조차 지키지 않았는데 중앙당이나 지역구의원의 영향력 없이 정말 진정한 상향 공천을 이룬다는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보십니까"라며 "더 이상 이런 정치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현철기자 [illegible]

본사인사

◆신규채용
▲김연식 편집국 편집위원
◆직책임명
▲최규훈 뉴미디어국 콘텐츠제작부 동영상기자
◆승진
▲김창현 통합마케팅국 부장 ▲류순호 편집국 연예스포츠부 차장 ▲이정우 편집국 편집팀 차장대우 ▲원지영 편집국 디자인팀 차장대우(임직) ▲전석준 뉴미디어국 미디어운영부 운영/영업팀 차장 ▲김은배 경영기획실 차장대우 ▲이해정 경영기획실 차장대우
◆전보
▲민용기 온라인뉴스부(편집/기사) 부장 ▲김두탁 경제산업부 산업/IT팀 차장 ▲서승희 경제산업부 산업/IT팀 수습기자 ▲백아란 경제산업부 금융/부동산팀 수습기자 ▲김학철 생활레저부 수습기자 ▲정혜인 생활레저부 수습기자 ▲김지민 연예스포츠부 수습기자 ▲전효진 연예스포츠부 수습기자

한국네슬레, 수입과자 이물질 검출 자진신고했는데 "판매중단-회수" 발표

식약처 '수상한 자화자찬'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은 한국네슬레(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의 과자류 제품 '네스프레소 돌체티 플러드 셀'의 조치 과정에서 식약처가 자진 신고한 업체를 무시하고 모든 공적을 자신들의 것으로 포장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네슬레가 수입-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금속 이물이 검출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서울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청으로 이물 검출에 대한 최초 소비자 신고가 있었으며 강남구청은 제품의 소비-유통 단계를 조사한 후 17일 서울지방청에 이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서울지방청은 수입 유통단계를 재확인한 후 19일 관할 지자체인 서울 서대문구청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주장은 달랐다. 메트로신문이 취재한 결과 한국네슬레는 지난 8일 고객 신고를 통해 금속 이물 검출을 확인했으며 10일과 11일 이틀간의 자체 조사를 거친 후 12일 서울지방청에 이 내용을 자진 보고했다. 그리고 서울지방청은 일주일 후인 19일이 돼서야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 발표했다.

한국네슬레의 주장대로라면 식약처는 업체의 자진 신고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 된다. 게다가 시중에 유통된 제품 780개 가운데 19일까지 이미 728개가 팔린 상황이었다.

더욱이 식약처는 제품의 회수를 해당 지자체가 담당한다며 회수 상황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회수는 지자체 권한이라 서대문구청에서 회수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또 해당 제품은 10곳에서만 판매가 됐는데 식약처는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에서 제품 판매가 자동 차단된다는 엉뚱한 설명을 덧붙였으며 회수 정보가 공개되는 식품안전 회수코너 역시 19일과 20일에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이물질 발견을 자진 신고했지만 제품이 마치 불량식품 단속에서 적발된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인식돼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식약처가 머뭇거리며 자신들의 공적 쌓기를 짜 맞추기 하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마저 나서서 외치고 있는 식품 안전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홍혜윤기자 hmsu135@metroseoul.co.kr

삼일절이 토요일 그럼 혹시?

대체휴일 적용 관심 집중
올해는 추석 연휴만 해당

삼일절을 닷새 앞둔 24일 오후 서울 국회대로에서 서울지방보훈청 관계자들이 태극기를 걸고 있다. /연합뉴스

삼일절인 3월 1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휴일제'가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공휴일 가운데 설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삼일절은 대체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대체휴일제 첫 적용일이 돼 닷새 연휴가 주어진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윤다혜기자 yd@

서울 어린이 교통사고 3년내 절반으로!

서울시가 201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를 지금의 절반가량으로 줄이겠다고 24일 밝혔다.

김경호 서울시 교통본부장은 이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운영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1년 기준 서울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만 명당 1.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지만 영국(10만 명당 0.5명)에 비해서는 3배가량 높다"며 "201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영국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스쿨존을 40개소 추가해 1703개소로 확대하고 2016년까지 모든 스쿨존에 폐쇄회로(CCTV)를 100% 설치한다.

또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은 제한 속도를 최대 30km/h까지 하향 조정하고 사고다발구역은 제한 속도를 20km/h로 낮출 계획이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속도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각각 8만원, 7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진환기자

보리 밟는 새싹들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독락교 경의선공원 보리씨종자에서 열린 '보리밟기 및 민속놀이 꽃 체험 체험' 에서 어린이들이 보리밟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북측 언니 60여 년 만에 만난 이연숙 전 의원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연숙(79·사진 왼쪽)씨가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에서 북측의 언니 리양순(82·오른쪽)씨를 60여 년 만에 만났다.

이들은 23일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첫 만남을 갖고 24일 오전에는 금강산호텔 숙소에서 진행된 개별 상봉을 통해 이들께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임순씨는 6·25 한국전쟁 당시 서울간호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부상병들을 간호하는 데 동원됐다가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북으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언니는 평양에 살면서 내과 의사를 했다고 하더라"며 "북에서 만나 결혼했다는 형부도 자라뵐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하니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00~2004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전국구 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새누리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조현정기자 겸@

'정치깡패 용팔이' 김용남 교회 불 지르려다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사랑의 교회 내부 문제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김용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경유 10ℓ를 사들고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본관 4층 담임목사실로 찾아가 자신의 몸과 복도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교회 신축 및 담임목사 논문 표절 등 내부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던 중 담회가 문제해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용팔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정치 깡패였던 김씨는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인 일명 '용팔이 사건'의 주범으로, 현재 사랑의 교회 신자다.

/윤다혜기자

태극기 달기 시범아파트 운영

서울시 성동구는 제95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태극기 달기 시범 아파트를 운영한다.

이번 시범 아파트 운영은 새마을지도자 성동구협의회 주관으로 가정용 태극기를 보급, 국경일에 각 가정 태극기 달기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랑소방서 소방로 확보 훈련

서울시 중랑구는 중랑소방서와 함께 25일부터 27일까지 관내 5개 전통시장에서 소방로 확보 및 화재 예방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 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 등 총 25명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은 소방 통로 확보 훈련과 소화기 사용법, 화재 시 비상 응급조치 요령 등의 소방 안전 교육을 진행한다.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

서울시 영등포구가 오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2014년도 제1차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기업소개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작성해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담배·과자 훔치는 요즘 조폭

동네 마트-편의점 돌며 13차례 1300만원 털어

동네 마트에 들어가 담배 등을 훔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새벽 시간에 상습적으로 편의점과 마트를 턴 혐의(특수절도)로 군산의 한 폭력조직원 이모(22)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익산, 군산지역의 중소형 마트를 돌며 모두 13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금뿐 아니라 담배 100여 갑과 과자 등 먹을거리까지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두탁기자 kimdt@

엄마에게 바치는 학사모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13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어머니에게 학사모를 씌워주고 있다. /뉴시스

장학재단-여성부 '나눔 협약'

한국장학재단과 여성가족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가근로장학사업과 국가장학사업, 다문화멘토링사업 등에 있어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역량 개발과 건강한 성장 지원 등 주요 정책에 맞춰 청소년 관련 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권익 관련 시설 등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국가근로장학사업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2014. 2. 24(월) 조소 한국장학재단

재단은 국가근로장학생을 선발·배정, 대학생에게 직업 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교류를 강화, 국가 시책과 공동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어디서 누가 돌보나

내달부터 시행하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교실·교사 확보 안돼 비상

방과 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학교가 무료로 돌봐주는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3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일선 학교는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몸짐만 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내놓은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 연계 운영계획'을 보면 초등학교는 새 학기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오후돌봄교실(방과 후~오후 5시)과 저녁돌봄교실(오후 5~10시)을 운영한다.

오후돌봄교실은 희망 학생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저녁돌봄교실은 맞벌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자녀로 한정된다.

그러나 일선 학교는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바닥 난방이 된 좌식 생활이 가능한 전용 교실이나 겸용 교실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학교는 돌봄교실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오후돌봄교실 희망자는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탓에 올해 돌봄교실 이용을 희망한 학생은 지난해 15만9737명보다 8만여 명이 증가한 24만6120여 명에 이르렀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돌봄교실을 늘리거나 교실당 인원을 25명으로 늘려야 하지만 이럴 경우 학생들이 앉아있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서울 마포구 돌봄교사 김모(30)씨는 "무료로, 월급제로, 그것도 대책 없이 돌봄교실을 시행하면서 일선 학교는 교실 부족 등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다"고 비소연했다.

돌봄교실의 보육 기능 및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예산이 부족한 학교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시간제 강사를 채용하고 있다. 시간제 강사가 4

수용 인원 8만명 증가 학교는 예산 없어 뒷짐 교육의 질 저하 우려도

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돌봄 전담교사가 모든 반들을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데 결국 아이들을 방치하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신경 쓸 여력도 없다.

김씨는 "위에서는 애들 교육 안 해도 되니까 잘 보기만 하라는데 아이들이 오후 12시30분에 와서 10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학부모의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5시간 이상 보내면 정신 건강에도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돌봄교실 확대로 학교, 교사는 대혼란에 빠졌고 곧 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돌봄교사들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올해 3년차인 송파구 돌봄교사 이모(33)씨는 지난해 간신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4대보험 및 수당들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올해 학교당 1명의 돌봄교사(전담교사) 배치 규정에 따라 이씨는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겨야만 했다. 더욱이 재배치된 학교에서도 "우리도 이미 전담교사 2명이 있는 상태라 더 이상 전담교사가 필요 없다"고 이씨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

이씨는 "새 학기부터 배치받은 학교는 결국 전담교사가 3명이 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학교당 1명의 돌봄교사 배치 규정과 맞지 않다"며 "이는 지속적인 재배치로 돌봄교사를 자연 감축하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윤다혜기자 yddh@metroseoul.co.kr

metro Puerto Rico

notivación en
e crisis fiscal

metro France

전통시장 880억 들여 복합문화공간 변신

프랑스 파리의 한 오래된 시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해 주목받고 있다. 파리 3구에 위치한 앙팡시장은 10여년간 6600만 유로(약 960억원)에 달하는 게 보수가 진행됐다. 1500㎡에 달하는 이 시장의 1층은 대형 행사를 위한 행사장으로 쓰이게 된다. 1863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곳이었지만 2001년 파리 시장이 제거 발을 저지했다. 중세시대에는 이곳에 지하 공동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metro Sweden

efterfrågan gör att grisarna
is till Polen

값싼 수입산에 밀려 스웨덴 돼지산업 휘청

스웨덴 돼지 축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값싼 수입 돼지고기에 밀려 기르고 있던 새끼 돼지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 보내는 실정이다. 최근 스웨덴에서 폴란드로 이송된 새끼 돼지 수는 650여 마리다. 많은 스웨덴 도살업자가 더 이상 돼지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산 돼지에 대한 수요가 너무 낮아 손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의사들은 너무 많은 돼지를 기르는 경우 동물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경고했다.

metro HongKong

중국 '6세 갑부' 뭉칫돈 내밀며 "여자친구 주게 오토바이 팔라"

최근 중국 인터넷에 6세 꼬마 갑부가 수천 위안을 들여 10세 여자친구에게 오토바이를 선물로 사주려고 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다.

한 네티즌은 얼마 전 오토바이 매장에서 만난 어린이에 대한 글을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올렸다. "남자 어린이가 돈다발을 들고 가게로 들어와서 옆에 있는 열 살짜리 여자친구에게 줄 거라며 가장 비싸고 좋은 오토바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행동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꼬마 갑부 때문에 애인한테 핀잔을 들었어요."

이 네티즌은 현장에서 찍은 사진도 올렸다. 사진 속 남자아이는 파란색 점퍼를 입은 채 가게에 전시된 오토바이 위에 앉아있고, 그 옆에는 분홍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서 있다(사진).

매장 주인은 "여섯 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키 큰 여자아이와 같이 와서 돈다발을 들고 전기 오토바이를 사려고 했다"며 "장난으로 돈이 부족할 것 같다고 말하자 아이는 1만 위안 넘게 있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나중에 부모와 함께 와서 오토바이를 구입하라고 아이를 타일렀다"면서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는 '엄마 아빠는 어떤 중 이라며 가게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에 냉큼 올라 탔다"고 덧붙였다.

아동 심리 상담 전문가 가오페이는 "부모는 반드시 아이의 정서 교육에 힘써야 한다. 아이가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근검절약 정신과 올바른 소비 습관, 이성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잘 가르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문희 조선미기자

출근길 행복 주는 '지하철 DJ'

푸에르토리코 기관사 재치있는 멘트로 지친 승객들 '힐링'…매일 새 메시지 전해 팬까지 생겨

"승객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월요일에 볼 수 있는 찌푸등한 얼굴은 하지 마세요."

중남미의 작은 섬나라 푸에르토리코의 지하철 안에서 분주한 출근 시간마다 재치 넘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지하철의 동기부여 목소리'의 주인공은 조나단 파본(사진). 올해로 지하철 운전 경력 8년차를 맞이한 그는 '행복 바이러스' 전도사다.

파본의 근무 시간은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긴 편은 아니다. 이 시간 동안 마이크에 불어넣는 그의 따뜻한 숨결은 시간에 쫓기며 바쁘게 사는 직장인들을 위로한다.

파본은 "나는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유쾌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서 "물론 어른처럼 고민거리도 많지만 즐거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힘든 하루도 빨리 지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지하철 시인'으로 변신, 낭만적인 표현으로 승객들의 귀를 사로잡는다.

"오늘은 억수같이 비가 내립니다. 이런 날에는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올 확률은 없겠죠. 여러분 마음에는 비가 내리지 않나요? 그럼 오늘 날씨는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맑음' 입니다."

파본은 피곤하고 슬픈 모습으로 전동차에 오른 승객들이 한껏 기분 좋은 얼굴로 내릴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 그는 이런 기쁨 때문에 매일 새로운 지하철 방송 멘트를 개발한다.

그의 메시지는 모국어인 스페인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영어, 포르투갈어, 심지어 중국어로도 문장을 만들어 발음을 연습하고 사람들에게 '이국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파본의 열렬한 팬이라는 대학생 승객 라파엘은 "파본 덕분에 매일 아침이 즐겁다"면서 "유쾌한 사람의 감정은 주변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강조했다.

파본의 지하철을 처음 탔다는 이 사벨도 "굉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기 없는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가 사람들의 표정을 전부 밝게 바꾸고 있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파본은 "내 노력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며 활짝 웃었다.

/후안 카를로스 벨로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4일>

코스피	코스닥
1946.05 (-8.78)	526.54 (-2.17)

금리	환율
2.87 (-0.01)	1073.00 (+1.50)

뉴스 & 뉴스

위조지폐 15년래 최저 수준

● 위조지폐 발견 비율이 1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중 위조지폐 발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이 화폐 취급 과정에서 직접 발견하거나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3585장으로 2012년(8623장)보다 58.4%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의 위폐 식별 능력과 신고 의식이 향상되면서 위조지폐 사용 환경이 어렵게 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준기자

1월 수출량 전년비 증가세

● 1월 수출 물량이 설 연휴에 따른 영업 일수 감소에도 전년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수출물량지수는 통신·영상·음향기기의 일반 기계제품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1월보다 1.7% 상승했다.

지난해 1월 영업 일수는 24일이었지만 설 연휴가 낀 올해 1월 영업일수는 22일이었다. /유선준기자

체크카드 발급건수 신용카드 첫 추월

체크카드 발급 건수가 신용카드 발급 장수를 처음으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지급결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크카드 이용 실적은 하루 평균 2630억원으로 전년보다 13.7%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카드의 세제 혜택이 줄어든 반사 효과를 봤다"면서 "2012년 10월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도 30만원 한도의 신용 기능을 갖춘 하이브리드카드 발급이 가능해진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장수는 2013년 말 현재 1억701만 장으로 국민 1인당 2.2장꼴이었다. 신제 발급 장수는 신용카드(1억202만 장, 1인당 2.1장)를 앞질렀다.

국내 신용카드 이용 실적은 하루 평균 1조3730억원으로 집계됐다. /채신 자기자

MWC 개막…"삼성·LG만 바라봐"

세계 3대 IT 전시 행사 국내 IT 기업들 총출동 최대 이슈는 '갤럭시S5'

KT 신입사원들 "우리 MWC 왔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GSMA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4'에 참가하는 KT 신입사원들이 지난 23일(한국시간) 전시장 입구 피라그란비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4일 개막한 이번 행사는 27일까지 계속된다.

전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4가 2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본격 개막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주최로 1987년 처음 개최된 MWC는 전시회 명칭도 'GSM 월드콩그레스'로 시작됐다. 당시 통신사 주도의 소규모 전시회였던 행사는 2008년부터 MWC로 명칭을 바꾸며 지금은 매년 1월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국제소비자가전쇼(CES), 9월 독일 베를린의 국제가전박람회(IFA)와 함께 세계 3대 IT 전시회에 꼽힐 정도로 급성장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참여해 이동통신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통신기기를 선보인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해 MWC에서 혁신적인 제품들로 이번 행사의 주목을 한눈에 받고 있다.

우선 삼성전자는 행사 첫째날 차세대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S5'를 공개한다. 삼성전자가 2011년 첫선을 보인 '갤럭시S 시리즈'는 지금까지 누적 판매 2억대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이번 MWC에서도 갤럭시S5가 공개될 것이라는 소식에 현지 언론을 비롯,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갤럭시S5의 출시 발표 방식가 'MWC 2014'의 메인이라고 언급할 정도다.

신종균 삼성전자 IT 모바일(IM)부문장 사장은 행사 전날인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체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갤럭시S나 갤럭시 노트 시리즈 등 주력 스마트폰은 이미 확고한 기반을 다졌다"면서 "이번에 공개되는 갤럭시S5도 전 세계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갤럭시S5 출시에 힘을 싣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현지 행사에 직접 참여한다. 지난 1월 열린 CES에 불참했던 이 부회장은 이번 MWC에 참석해 세계 IT 트렌드를 살펴보고 주요 거래처와 면담을 통해 갤럭시S5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세대 웨어러블 기기인 '삼성 기어2'와 '삼성 기어2 네오'를 동시에 공개하고, '갤럭시 노트3 네오'도 선보일 계획이다.

LG전자는 '내일을 노크하세요(Knock and Discover Tomorrow)'를 주제로 최근 국내에서 출시한 'LG G프로2', 'G플렉스', 'G2미니', 'L시리즈' 등 스마트폰 8종 130여대를 선보인다.

박종석 LG전자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 사업본부장 사장은 "G프로2에 처음 탑재한 '노크코드' 를 비롯, 차별화된 사용자경험(UX)을 통해 올해(스마트폰 시장) 세계 3위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엄마 봄옷 빨리 입고 싶어요" 24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화사한 색상의 어린이용 봄옷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옥스퍼드 아동 셔츠와 컬러 레깅스 등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품질의 제품 가격을 브랜드보다 20%가량 저렴한 각 1만70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중국 IT업체 얕잡아 보면 안돼"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중국 스마트폰 시장을 얕잡아봐선 안 된다. 성장 속도가 빨라서 장래에 세계시장에서 돋보일 것이다."

신종균(사진) 삼성전자 IT 모바일(IM) 사장은 2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힐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업체를 얕잡아보는 말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신 사장은 최근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 업체 화웨이에 대해 "네트워크 사업도 하고 스마트폰도 열심히 한다"고 전했다.

다만 화웨이가 이날 내놓은 웨어러블 기기 제품에 대해서는 "경쟁사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 사장은 삼성전자 역시 올해는 스마트폰 시장보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서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기어 시리즈 제품은 그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사장은 '졸면 죽는다'기 자신의 어록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예전 버전이고 요즘은 '굼뜨면 죽는다'다"며 "이는 1등이 됐다고 자만하면 금방 뒤처진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4일 'MWC 2014'에서 '갤럭시S5'를 공개한다. /이재영기자

'가계부채 불 끄기' 팔걷었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까지 도달함에 따라 정부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취급 확대를 유도하고 세제·건전성 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1000조원 수준. 연착륙 정책 추진으로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는 있지만 대출 구조의 취약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출구조 비중에 대한 조정이 진행된다. 지난해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은 15.9%, 비거치식은 18.7%다. 금융업계는 2016년 말까지 각각 30% 이상으로 비중을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시상환대출 등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자에 대해 금리 상승 리스크 등을 충분히 고지하는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 경감 및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권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실 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촉발될 수 있는 잠재리스크에 전체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늘려 금융권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자율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254-2800
독자센터 02)721-9765
2005년 1월 3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16

포트폴리오 내맘대로! 'DIY펀드' 할래

최근 금융사들 관련 투자세미나 신설 잇따라

국내외 증시가 각종 변수에 흔들리며 펀드 수익률이 믿음을 주지 못하자 이익이 날 수 있는 펀드를 골라내 조합하는 이른바 펀드DIY(Do it yourself)족이 뜨고 있다. 24일 증권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사들은 이런 DIY족을 겨냥한 펀드 관련 투자세미나를 잇달아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이하 투교협)가 올해 상반기 동안 진행하는 "펀드투자 제대로 하자" 강연에는 1~2월 4차례 강연에만 110명 안팎의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이 기간 투교협 강연은 펀드제도,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파생상품투자형펀드를 다뤘다.

투교협 관계자는 "매년 달라지는 금융 투자 환경에 맞춰 교육 주제를 정한다"며 "지난해 주식 투자와 부동산 침체에 쏠리던 관심이 펀드투자로 옮겨간 것을 반영해 연초 강연은 펀드를 주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KDB대우증권의 부천지점은 지난해 말 처음으로 펀드 관련 투자세미나를 열었다.

주식시장 침체로 펀드 수익률도 저조한 상황에서 대우증권 지점 직원이 직접 롱숏펀드 투자세미나를 열자 1회 20명 안팎의 고객이 몰렸다.

이소영 부천지점장은 "기존 펀드 수익률이 좋지 않다 보니 그나마 관심이 많은 롱숏펀드를 주제로 삼았다"며 "투자설명회가 매달 열리지만 펀드를 주제로 한 것은 최근 수년간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향후 온라인 펀드투자가 보편화되면 이런 DIY족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온라인 펀드 쇼핑몰 격인 펀드슈퍼마켓 문 꾸린 펀드온라인코리아 관계자는 "다음달 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며 "웹사이트에 알기 쉬운 펀드 설명과 함께 펀드 수익률·등급 등의 데이터, 펀드 선택 노하우를 게재해 투자자의 선택을 도울 방침"이라고 전했다.

펀드슈퍼마켓은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펀드에 직접 가입하는 대신 수수료를 오프라인 가입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온라인 전용 펀드 판매 채널이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더플랫폼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온라인펀드 시장이 자리 잡은 유럽 소매 펀드 시장의 자기주도적(DIY) 투자자 비중은 2011년 26%에서 지난해 31%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대중 연구원은 "은행·증권사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펀드 채널은 최근 채 정체된 상태이며 온라인 판매 비중도 1%에 불과하나, 영국의 경우 DIY족이 중심이 된 온라인 판매 비중이 약 7%로 추산된다"며 "최근 들어 한국도 유럽처럼 은행·증권사에 의존적이던 펀드 판매 채널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피싱 피해자 1인당 184만원 환급

피싱사기 피해자 한 명당 184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피해 액수로는 1인당 900만원 넘게 돌려받아야 하나 실제 환급액은 5분의1 수준에 그쳤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9월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5만746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만8429건(2만3791명)에 대해 438억원이 환급됐다.

1인당 환급액은 184만원으로 총 피해액 2084억원(1인당 876만원)의 21% 수준이었다.

피해자가 피싱사기를 알아챈 뒤 30분 안에 지급 정지된 경우는 7.3%(3622건)에 불과했다.

피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e메일에 가짜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해 접속 유도 후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이다.

2011년 4분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건수 중 유형별로 보면 보이스피싱이 60.6%(3만4806건), 피싱·파밍(39.4%, 2만2659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 사칭한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업권별 대응반을 구성해 피해 발생 시 수사 의뢰를 하고 신 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관계 기관 간 합동 단속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대한항공 '한마음' 캠페인 전개 24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별당에서 열린 '한마음 캠페인' 선정행사에서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 사장(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조현민 통합커뮤니케이션 전무(왼쪽 둘째)가 임직원들의 명함을 이용해 만든 하트 조형물 앞에서 포즈 취하고 있다. /뉴시스

대기업 '주총데이 담합'에 개미들 분통

10대 그룹 계열 31개사 다음달 14일 개최 공시 "소액주주 참여제한 저사"

10대 재벌 계열사들이 올해도 한날한시에 정기 주주총회를 열 계획을 밝히자 소액주주들 의결권 문제가 불거졌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0대 그룹 소속 12월 결산 상장사 36개사 중 31개사(88.6%)가 다음달 14일 오전에 주총을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삼성그룹 계열사 12곳은 이날 오전 9시에 주총을 동시에 연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7곳도 마찬가지로 이날 같은 시각에 주총을 개최하며 현대하이스코만 3월 21일에 열린다.

LG그룹 계열사 7곳은 14일 오전에 주총을 열고 LG디스플레이만 앞서 3월 7일로 주총 날짜를 잡았다.

GS그룹은 14일에 GS홈쇼핑, 코스모산소지가 주총을 열고 GS, GS건설, GS글로벌, 코스모화학은 3월 21일로 몰렸다.

SK그룹 계열사 15곳도 14일에 집중됐으며 SK텔레콤만 3월 21일에 열린다.

주총이 한날한시에 열릴 경우 해당 그룹의 계열사 두 곳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소액주주 참여를 제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투표제 등의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이를 이용하는 기업은 전무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은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최소한 삼장사만이라도 전자투표 도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휘정기자

"아베노믹스 파국 여부 4월 돼봐야"

일본의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 성패는 오는 4월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잘나가던 아베노믹스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 기준 1.0%로 발표됐다. 당초 경제 전문가들은 2.8% 수준의 강한 상승세를 전망했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아베 총리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외신들은 "아베노믹스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아직 완전한 파국까지 다다른 것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1월 자동차 판매 대수가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4분기보단 올 1분기에 소비가 다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김민지기자 [illegible]

현대차 스포츠카 '시동'

기아차 'GT4 스팅어'이어 컨셉트 모델 파쏘코르토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

현대·기아차가 스포츠카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GT4 스팅어'를 공개했고, 현대차는 오는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파쏘코르토(PassoCorto·사진)를 선보인다.

이 차는 이탈리아 토리노에 자리한 IED(Istituto Europeo Design) 운송수단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현대차 유럽 디자인센터와 협업해 완성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 지휘는 피닌파리나의 수석디자이너인 루카 보르고뇨(Luca Borgogno)가 맡았다. 현대차는 이들 학생들에게 "Y세대에 어울리는 스포츠카를 완성해보라"는 주문을 했고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이 모두 시안을 제시해 그 가운데 가장 반응이 좋았던 디자인에서 70%를, 나머지 제안에서 30%를 조합해 최종 디자인을 완성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자동차의 10분의 1 사이즈의 스케일 모델이 만들어졌다.

실제 차체 크기는 3988mm, 너비 1880mm 높이 1160mm 사이즈다. 현존하는 스포츠카 중에는 알파로메오 4C와 유사한 크기다. 휠베이스(앞뒤 바퀴 축간 거리)는 2451mm다.

파워트레인은 1.6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을 미드십에 장착하고 뒷바퀴를 굴리는 방식이다. 최고 출력은 266마력으로, 현대차가 선보인 차 중 배기량 대비 출력이 최고 수준이다.

파쏘코르토는 다음달 4일 오후 4시(현지시간) 제네바 모터쇼장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공개된다.

/정재웅기자 ferrari@metroseoul.co.kr

포스코 '권오준 호'는 실무형

사내이사 후보 3명 전원 계열사 근무 경험 '눈길'

포스코 '권오준호'의 윤곽이 드러났다. 사내이사를 실무형 인재로 대거 교체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 내정자는 24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진일 포스코켐텍 사장, 이영훈(경영기획본부장) 포스코건설 부사장, 윤동준(경영전략2실장) 포스코 전무(경영전략2실장) 등 3명을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김 사장은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권 내정자와 막판까지 경합했던 현장 생산 전문가다. 이 부사장은 경영기획실장, 재무실장 등을 두루 거친 기획·재무통으로 알려져 있다. 윤 전무는 조직인사실장, 인재개발원장 등을 역임한 인사·조직 혁신 전문가로 꼽힌다.

포스코 관계자는 "사내이사 전원이 계열사 근무 경험이 있는 인사로 구성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라며 "현장성·전문성·소통을 중시하는 권 내정자의 인사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국성기자 [illegible]

황창규 KT회장의 '이석채色 지우기'

내달 주총 '이사진 물갈이'

황창규 KT 회장이 이석채 전 회장 색깔 벗기기에 본격 나선다.

KT는 다음달 21일 주주총회를 열고 11명의 이사진 중 7명을 새로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석채 전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김일영(코퍼레이트센터장) 전 사장과 표현명(T&C부문장) 전 사장이 맡았던 사내이사는 한훈(부사장) KT 경영기획부문장과 임헌문(부사장) KT 커스터머 부문장이 맡게 됐다. 두 사람 모두 황 회장이 발탁한 인사들로, 한 부사장은 KT F 전략기획부문장, KT 기획부문 전략기획실장, KT네트웍스 대표 등을 지냈으며 임 부사장은 KT 홈고객부문 운영총괄, KT T&C부문 운영총괄 등을 맡은 바 있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KT 회장 후보로 나섰던 임주환 고려대 전자및정보공학과 객원교수, 김종구 전 법무장관, 박대근 한양대 경제금융대학장, 유필화 성균관대 교수,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추천됐다.

이번 주총에선 감사위원회 위원도 새롭게 선임된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번에 새롭게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김 전 법무장관과 유 교수를 비롯, 성극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3명이다.

사내이사가 황 회장이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되고 사외이사도 일부 바뀌면서 본격적인 황창규호가 출범할 전망이다. 이번 주총 이후 황 회장의 경영 추진에도 보다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재영기자 [illegible]

삼성전자 "친환경 박스 사용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부터 리모컨, 설명서 등 TV 액세서리의 포장재로 사탕수수 원료를 첨가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적용한다.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 TV와 UHD TV 액세서리 포장재에 적용된 100% 재생지 박스. /삼성전자 제공

정몽구 회장 현대제철 등기임원 사퇴

"자동차에 전념하겠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현대제철 등기임원에서 물러난다.

현대제철은 다음달 1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종료되는 정 회장 후임으로 강학서 현대제철 사장을 선임하는 안을 상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제3고로 완성, 현대하이스코 냉연부문 합병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쪽에 전념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현대제철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강 부사장 선임은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악화하는 철강 시황 속에 재무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 내실 경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둘러보는 정몽구(가운데) 회장.

앞서 현대제철은 작년 9월 제3고로 가동으로 연산 1200만t의 일관제철소 작업을 완성한 데 이어 작년 말에는 현대하이스코의 냉연(자동차 강판) 사업 부문을 넘겨받아 자동차 강판 전문 제철소로서 입지를 굳혔다.

/안호철기자

"중기수출·청년창업, 경제 두바퀴"

산자부·중기청, 박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서 창조경제 비전 제시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 무기로 중기 수출과 청년 창업을 꺼내 들었다.

수출 중소기업을 10만 개사로 늘리고 청년 창업 최고경영자(CEO) 1만 명을 육성해 경제 한파를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비전을 제시했다.

◆중기 수출로 내수 늘린다

산자부는 현재 8만7000개사인 중소 수출기업을 집중 육성해 3년 뒤에 10만 개사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판로 개척과 무역금융 지원 등을 강화하고 유망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는 전문무역상사를 지정·운영한다.

특히 중소 중견 수출기업이 대외 불안 요인에 맞설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77조4000억원을 무역금융(대출 보증 보험)으로 지원한다.

이는 수출과 내수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액과 무역흑자를 달성했지만 내수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 중견 수출기업 육성을 해법으로 꺼내 들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출산 육아 등을 위해 퇴직한 여성 연구·개발(R&D) 인력이 중소 중견기업에 재취업할 때 정부가 1인당 월 80만~100만원의 인건비를 3~6개월간 대주는 경력 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로 규모를 키우면 우선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소비 진작으로 내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 창업에 10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민간이 선별해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기술 창업을 매년 150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 엔젤 벤처캐피털 중견 대기업 등 민간이 1억원 이상 선투자하면 정부는 R&D자금 5억원 창업자금 3억원, 해외 마케팅 1억원 등 3년간 최대 9억원을 매칭 투자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2조원 규모 벤처펀드를 만들고, 엔젤투자 제도를 개선한다. 융자보다는 투자 중심의 창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 2017년까지 기술·아이디어를 가진 고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창업 CEO 1만 명'을 양성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 후보군 10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수출 초보 기업이 히든챔피언으로 거듭나도록 성장 단계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방안'을 7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상의 인력개발원 '입학=취업'

지난 2010년 지방 국립대를 졸업한 조창현(29)씨에게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니트(NEET)족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하지만 2012년 3월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에 입학하며 인생이 달라졌다. 조씨는 인력개발원이 제공하는 맞춤형 현장 교육을 통해 가구설계전문가로 거듭났고, 지난해 11월 가구업체 스페이스에 당당히 입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이 '입학이 곧 취업'이라는 입소문을 타며 구직자의 취업 양성소로 부상하고 있다. 24일 대한상의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전국 8개 인력개발원을 통해 1만613명의 전문 숙련기술인력을 양성했고, 이 중 1만264명을 취업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평균 취업률은 96.7%로 집계돼 1995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뒤 올해로 19년째 100%에 육박하는 취업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취업률 상위 100개 훈련 과정 중 38개가 상의 인력개발원 교육이었다. /김태균기자 ksy@

광고산업협회 19대 회장에 정만석 에드리치 대표 선임

한국광고산업협회는 24일 제28기 정기총회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고 정만석 에드리치 대표를 제19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정 회장은 코래드 사장을 거쳐 2005년 에드리치를 창립,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37년간 한국 광고 마케팅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온 전문 광고인이다.

성수동 수제화 장인들 "정말 한땀한땀이죠?"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구두와 장인' 매장에서 성수동 구두 장인이 수제화 제작 시범을 보이고 있다. '구두와 장인' 매장은 성수동의 제화협회 8개 브랜드가 함께 구성한 편집매장 형태로 여성 구두뿐만 아니라 부츠, 남성화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10만원대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현대차 연비 논란' 국내 상륙

북미에서 논란이 불거진 현대차의 연비 과장 문제가 국내에서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종은 쌍용자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과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이 차종의 연비는 14.4㎞/ℓ였지만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나중에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허용 오차 범위 5%를 초과한 것이다.

싼타페DM 차량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으며 국토부는 현대차가 요구한 측정 방법을 받아들여 이달 들어 연비 재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말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조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현대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보상한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표시연비와 실연비의 차이만큼을 돈으로 보상하라고 할 것"이라며 "보상 금액은 조사가 끝나야 산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혜기자 ferrari5@

삼성SDS·대우조선해양 구직자 위한 취업콘서트

삼성SDS와 대우조선해양 입사를 원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콘서트가 열린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크레듀오픽과 함께 28일과 다음달 6일 서울과 부산에서 '잡코리아 지식나눔 취업콘서트'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삼성SDS와 대우조선해양 인사담당자로부터 인재상과 취업 노하우를 직접 들을 수 있다. 또 삼성전자 등에 입사한 취업 선배들이 참석해 토크콘서트 형태로 취업 성공 노하우를 알려준다.

참가 희망자는 다음달 6일까지 잡코리아 행사 페이지(www.jobkorea.co.kr/event/jobconcert)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국명기자

층고 높이고 수납공간 넓히고… '+α 오피스텔' 떴다

입지는 기본 고객 수요 적극 반영에 인기몰이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 과잉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면서 수요자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α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고 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오피스텔은 풍부한 배후 수요와 뛰어난 직주근접 등 '입지'만 강조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공급 물량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지는 기본이고, 아파트와 같은 다양한 '+α'가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트로종합건설은 서울 서초보금자리지구 내 분양 예정인 '서초디벨리움'의 전용면적 29㎡를 투룸으로 구성했다. 원룸의 경우 신혼부부 등 2인 가구 이상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데다 현관을 열면 방 내부가 한번에 보여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전 세대의 층고를 3m로 설계해 좁은 공간이 보다 넓어 보일 수 있도록 개방감을 주고, 동시에 상부를 수납공간으로 꾸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 생활가구·가전 등을 빌트인으로 제공,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리게 됐다.

효성이 영등포 일대에 선보인 '당산역 효성해링턴 타워'는 지상 20층의 타워형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석재 마감을 더했다. 성냥갑 같은 촌스러운 오피스텔 외관을 탈피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2.5m 너비의 넓은 공간을 갖춘 자주식 주차장, 무인 택배 시스템 등 각종 보안 첨단 시스템을 갖춰 아파트 못지않은 편의성을 입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한때 오피스텔은 짓기만 하면 팔리던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워낙 공급량이 많고, 이에 따른 수익률 악화도 현실화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요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분양률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오피스텔이 청약 성적도 좋게 나타나고 있다. 작년 10월 서울 중구 순화동에 분양한 '덕수궁롯데캐슬'의 경우 전 세대 2.7m의 높은 천장고와 잠금수납장, 풀퍼니시드 시스템, 3가지 컬러 선택제 등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오피스텔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수납공간과 개방감, 천편일률적인 인테리어 문제를 개선했고 그 결과 178실 모집에 사전 예약자만 1000명 이상이 몰리며 단기간 100% 계약 완료를 달성한 바 있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오피스텔의 특성상 계약자, 즉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품의 질보다 무조건 싼 게 우선시됐었다"며 "하지만 공급 증가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한 퀄리티 높은 상품이 공급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l820@metroseoul.co.kr

메트로종합건설이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춰 선보인 유럽식 수납 인테리어 이미지.

SK네트웍스 신사옥 세계적 친환경 건축물 공인

SK건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시공한 SK네트웍스 신사옥(사진)이 친환경 건축물로 세계적 공인을 받았다.

SK건설은 24일 SK네트웍스 신사옥이 미국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인 리드(LEED)의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 신사옥은 앞서 지난달 정부가 주관하는 녹색건축인증(G-SEED)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최우수(그린1등급)와 1등급을 각각 기록했다. 여기에 이번 리드 인증까지 국내외 친환경 인증을 휩쓸어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물로 공인받았다는 설명이다.

이달 초 준공된 SK네트웍스 신사옥은 지하 5층~지상 9층, 연면적 4만7308㎡ 규모다. 일반 업무시설과 비교해 사용 에너지를 25%까지 절감했고, 이산화탄소(CO_2) 발생량은 34%가량 줄인 게 특징이다.

위례 상가도 수천만원 웃돈

분양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위례신도시가 아파트에 이어 상가에도 수천만원의 웃돈이 형성됐다.

24일 위례신도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한 '위례 1차 아이파크 애비뉴' 상업시설에 최고 5000만원까지 웃돈이 붙었다. 현재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송파 푸르지오 아파트가 5000만원 정도 웃돈이 붙은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분양률도 고공 행진이다. '위례 1차 아이파크 애비뉴'가 100% 완판된 데 이어 '위례 2차 아이파크 애비뉴'도 80% 넘게 팔렸다. 트랜짓몰 북측에 위치한 C1-7블록 소규모 근린상가 등도 이미 분양률이 50%가 훌쩍 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박선옥기자

한 푼 안쓰고 6년 모아야 전세금

작년 말 서울 아파트 전셋값 3억1265만원 달해

도시 근로자 가구가 5.7년간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 시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1년6개월이 늘었다.

부동산114는 작년 12월 말 현재 전국 아파트 707만여 가구의 전세금과 통계청의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2인 이상 기준) 소득을 비교한 결과, 이처럼 분석됐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은 작년 말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3억1265만원으로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 연간 소득(5527만원)의 5.66배에 달했다.

소득에 대한 서울 시내 아파트의 전세가 배율(PIR)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에는 4.12배에 그쳤다. 하지만 2011년 5.28배까지 상승했다가 2012년 5.15배로 다소 완화된 뒤 지난해 다시 급등했다.

이로써 분석 대상 기간인 최근 10년(2004~2013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금 상승폭이 소득 증가세보다 컸기 때문으로 작년 말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전년(2억7767만원) 대비 12.6%나 뛰었다. 또 10년 전인 2004년 말에는 1억5432만원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이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소득 대비 전세금 배율은 수도권과 전국 모두 최근 10년 사이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각각 4.05배와 3.25배로 집계됐다.

특히 수요가 많은 공급면적 99~132㎡ 미만(30평형대) 크기 아파트는 서울이 5.87배, 수도권이 4.35배, 전국이 3.63배였다.

/박선옥기자

가좌 행복주택에 문화공원·공연장 설치

올 상반기 첫 삽을 뜨는 서울 가좌 행복주택지구에 문화공원과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행복주택 가좌지구에 이 같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짓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철도로 단절됐던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경계를 휴식 공간으로 연결한다. 철도 인공대지 상부에 문화공원과 야외공연장 등을 계획하고, 산책로 주변으로 충분한 녹지를 마련해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가좌 행복주택지구 조감도.

또 남측과 북측에서 가좌역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보행동선을 계획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성과 접근성 확보에도 신경을 썼다.

마포구, 서대문구 지역 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시설과 어린이집도 들어선다.

복합커뮤니티시설에는 도서관, 문화체험실, 주민 공동행사장 등을 설치하고, 도서관에는 열람실, 스터디룸 등 학습공간을 충분히 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문화체험실은 방과 후 학습, 특기 적성 교육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 주민 공동 행사장은 요가·댄스교실, 미술공예 스튜디오, 소규모 행사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선옥기자

더빙·예고편…축구게임 흥행작전중

IT Cafe

소치 동계올림픽이 폐막하자 세계 스포츠 팬들의 관심은 벌써 6월 브라질 월드컵으로 향하고 있다. 따끈따끈한 축구게임 신작 '위닝일레븐 온라인 2014'와 '풋볼데이'에 생생함을 불어넣는 NHN엔터테인먼트 제작진의 이야기를 들었다.

NHN엔터의 멀티미디어팀 브라질 월드컵 열풍 타고 위닝일레븐2014·풋볼데이 신작 2편 출격 준비 한창

"더 기뻐하는 느낌을 살려주세요." "소리를 낮춰서 다시 해보실래요?"

신작 게임 작업이 한창인 작업실. 방음이 된 스튜디오에서 성우가 대본을 보며 목소리 연기를 하고 있었다. 대사 하나하나에 꼼꼼히 피드백을 하는 제작진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녹음을 마친 멀티미디어팀 정범영 부장은 "게임 사운드는 게임 완성도와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공신"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수입한 게임은 국내 배급 시 번역과 가공을 거치게 된다. 이때 사운드와 영상의 현지화가 얼마나 잘되었는지는 게임 성공의 중요한 요소다.

사운드는 스포츠 게임에 생생한 앙념을 얹는다. 축구 장르의 경우 골 실패 시 울렁이는 스타디움, 프리킥을 차기 전 고조되는 음성은 실

NHN엔터테인먼트 멀티미디어팀 직원들이 자기 게임 신작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제 게임에 참여하는 듯한 감정이입을 유도한다. 정식 서비스를 앞둔 '위닝 일레븐 2014'는 게임 속 축구 해설가 녹음 작업에만 한 달이 넘게 걸렸다.

정 부장은 "축구게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을 가정해 해설 대본 작업을 했다"면서 "스포츠 해설가 두 명을 섭외해 실제 경기를 중계하는 듯한 사운드 작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속 대본 두께만 단행본 두세 권 분량이었고, 가상의 경기를 대본을 보면서 녹음하니 실감이 안 나 재녹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게임기업 코나미에서 개발한 '위닝 일레븐 2014'와 달리 '풋볼데이'는 NHN엔터테인먼트가 자체 개발한 작품이라 품이 더 많이 들었다.

오승기 사운드 디자이너는 "실제 공을 차는 소리보다 더 현장감 있게 때리는 음향을 구현하기 위해 경기장을 수시로 찾았다"면서 "경기장 소리를 녹음하고 축구 경기를 시청하면서 진짜보다 진짜 같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이용자들은 잔잔한 소리보다 '팡팡' 터지는 음향을 선호해서 더 고민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잘 만든 게임 홍보 영상도 필수다. 정범영 부장은 '위닝 일레븐'과 '풋볼데이'에서 각각 구자철 선수의 축구 공단편성과 송종국 선수의 일인 다역 연기를 소재로 한 예고편 제작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다만 위닝 일레븐의 경우 흥미로운 예고편과 달리 게임은 재미없다란 혹평을 들으며 흥행 부진을 겪었다.

그는 "반응이 안 좋았던 전편과 달리 '위닝 일레븐 2014'는 부디 성공했으면 좋겠다"면서 "브라질 월드컵을 맞아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게임 영상을 준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 디자이너는 "게임 작업을 위해 매일 헤드폰을 끼고 있어 머리가 눌리는 직업병(?)이 생겼다"면서 "그래도 축구게임을 제작하면서 축구의 매력에 푹 빠졌다. 이용자들도 같은 마음이면 좋겠다"고 웃었다.

나처럼 풋풋한 노트북 모여!

새내기 위한 IT 추천

새 학기를 맞은 학생, 취업에 성공한 새내기 직장인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면 노트북이 제격이다. 공부를 할 때나 업무를 처리할 때 노트북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노트북을 주로 어떤 용도로 쓰느냐다. 문서 작성이나 인터넷 정보 검색이 주를 이룬다면 굳이 최고급 스펙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그래픽 디자인이나 사진 작업에 노트북을 사용한다면 전문가 용도로 특화된 제품을 우선 고려해봐야 한다. 휴대성과 디자인이 뛰어나면 금상첨화다.

삼성전자의 '아티브 북9 라이트'(사진)는 1.44kg의 가벼운 무게와 8.5시간 지속되는 배터리를 탑재해 학생은 물론 직장인에게 적합하다.

이 제품은 특히 화제의 드라마에서 일명 '천송이 노트북'으로 관심을 모았다. 블랙·화이트·라임그린 등 젊은이들을 사로잡는 독특한 컬러를 입혔기 때문이다.

메모리 용량 4GB, AMD 쿼드코어 CPU, 윈도8.1 운영체제(OS) 등 스펙도 평균 이상이다. 인터넷몰 기준 80만원대 가격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전문가용 수준의 성능을 원하는 직장인이라면 레노버의 '뉴 씽크패드 X1 카본'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제품은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 매우 견고하고 14인치 노트북 가운데 가장 가벼운 비즈니스 울트라북이다.

인텔 i7 4500U CPU, 무게 1.27kg, SSD 용량 256GB, 해상도 2560×1440, 운영체제 윈도8.1 등 동급 최강의 스펙을 자랑한다.

가격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마켓·11번가·쿠팡 등 온라인몰을 살펴보면 된다. 29만원짜리부터 40만원대까지 의외로 성능 좋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 제품이 많다. 다만 2kg대의 다소 버거운 무게와 OS가 없는 깡통 PC이기 때문에 사후 소프트웨어 관리를 소비자가 직접 해야 한다. 윈도 OS 구매에는 10만원대가 든다.

스페인 아이들 '아띠' 삼매경 23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스페인 1위 통신사 텔레포니카 모바일 월드 센터에서 지원들이 SK 텔레콤이 개발한 '아띠'를 이용해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아띠'는 스마트폰을 활용 동화·동요 등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유아교육 로봇으로 지난해 12월 누적 5만대 판매를 기록했다. /SK텔레콤 제공

3만원짜리 스마트폰 나왔다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운영체제(OS)인 '파이어폭스' 개발업체 모질라가 3만원짜리 스마트폰을 공개했다.

모질라는 24일 개막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4'에서 이 제품을 선보이고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 시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기에는 중국 저가형 칩 설계업체 스프레드트럼의 프로세서가 탑재됐고 앱 설치, 웹페이지 검색, e메일 전송 등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국내를 비롯한 북미·유럽·중국 등에는 출시되지 않을 전망이다. 개발도상국의 통신망이 2.5세대인 만큼 이에 적합한 통신 장비를 달았기 때문이다. 3G나 4G용 통신 칩을 장착하면 제조비가 올라간다.

모질라는 ZTE, 화웨이와 함께 쿼드코어와 듀얼코어를 장착한 프리미엄 스마트폰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ZTE는 파이어폭스폰 '오픈C'를, 화웨이는 자사 첫 파이어폭스폰 'Y300'을 공개했고 프랑스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 알카텔은 파이어폭스 기반의 첫 태블릿 '파이어'를 관람객에게 보여줬다.

하이원엔터 제작 3D애니 '작과 팡' 26일 EBS 첫방

강원랜드의 자회사이자 모바일 게임 제작에 주력하고 있는 하이원엔터테인먼트가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화제다.

입체적인 팝업북 형식의 3D 애니메이션 '작과 팡'을 26일 EBS에서 첫 방영한다.

'작과 팡'은 리더십 강한 작과 호기심 많은 아기 오리 팡, 다람쥐 숏 숏 친구들의 우정과 신나는 모험을 담은 미취학 아동 대상의 애니메이션.

책장을 펼치고, 손잡이를 잡아 당기거나 들어 올리는 등 팝업북을 넘기는 듯한 환상적인 장면과 상황 전환으로 시각적 즐거움을 극대화해냈다.

엄홍길휴먼재단 '무료 인공관절' 선물

생계 힘든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인공관절 수술 후원 통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희망 선물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처럼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몸의 기능과 몸을 구성하는 장기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노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노화에는 주름이나 흰머리, 혹은 허리가 휘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노화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무릎관절이다. 우리 몸을 지탱하고 이동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무릎은 우리 신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 중 하나로 무릎의 지속적인 사용과 손상으로 노화가 진행되면 퇴행성관절염이 생기게 된다.

◆작은 통증부터 시작되는 퇴행성 관절염, 조기 발견이 중요

퇴행성관절염이란 우리 몸속에 있는 연골이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되거나 마모되면서 점점 닳아 없어져 뼈와 뼈가 맞닿아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퇴행성관절염 환자의 70~80%가 중장년층인데 다수의 사람들은 퇴행성관절염을 다른 사람들도 느끼는 통증이라고 생각하며 통증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질환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행성관절염은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 초·중기·말기로 구분된다. 초기와 중기에는 무릎에 불편을 느낄 정도의 작은 통증이 발생하지만 말기에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무릎의 모양이 O자형으로 변형되거나 무릎이 붓고 물이 차기도 한다. 작은 통증에 병원을 찾아 조기에 질환을 발견했다면 연골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간단한 주사치료나 연골 재생 등의 보존적인 치료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진 말기의 상태가 되면 약물이나 주사, 운동, 물리치료 등은 효과가 없어지고 '인공관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으로 남게 된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무릎, 다리 모양이 변형된 말기라면 인공관절 수술이 특효

인공관절 수술은 연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을 넣어 없어진 연골과 바꿔주는 수술이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운동 각도를 늘린 고굴곡 인공관절, 여성의 골격에 맞춘 여성형 인공관절, 개인 골격에 정확히 맞춘 맞춤형 인공관절 등이 있으며 수술 후에는 꾸준한 재활과 운동을 통해 등산이나 여행 등 건강하던 무릎을 가졌을 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지 않은 수술비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인공관절 수술을 한쪽 무릎만 받을 경우의 수술비는 대략 200만~300만원 정도다. 양쪽 모두 시행할 경우에는 약 500만원가량의 수술비가 발생하며 검사비와 진료비 등도 추가적으로 부담이 된다. 즉 양 무릎을 수술받는다면 대략 6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게 되는 것이며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엄홍길휴먼재단, 저소득층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 전개

이에 산악인 엄홍길(사진) 대장이 설립한 엄홍길휴먼재단이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통증을 참으면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 나섰다.

수술비 부담에 밤낮으로 통증을 참아가며 고생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 '무료 인공관절 수술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엄홍길휴먼재단 캠페인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본인의 어려운 사연과 증상 등을 접수하면 된다. /정혜중기자

> **◆치료 후원 신청 방법**
>
>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 - 전화 :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 인터넷 :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우측 후원 캠페인 배너를 통해 신청

27일 모야모야병 공개 강좌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오는 27일 오후 3시 병원 임상 제2강의실에서 '모야모야병 공개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모야모야병(채종희 소아청소년과 교수) ▲어린이의 수술적 치료(김승기 신경외과 교수) ▲어른의 수술적 치료(김정은 신경외과 교수) ▲감성센터 소개(김붕년 소아정신과 교수) 등의 강연이 이어지며 강의 후에는 참석자들과의 공개 상담도 진행된다.

다음달 4일 백내장 건강강좌

인제대 서울백병원이 다음달 4일 서울 충무아트홀에서 '노인성 백내장 증상과 치료법'을 주제로 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김태진 서울백병원 안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 교수는 백내장의 종류와 증상을 소개하고 수술을 통한 시력 개선 방법, 돋보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노인 교정방법인 초점 인공 수정체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강의 전에는 혈압, 혈당 등과 관련된 건강 상담도 진행된다.

말띠 신생아 가족들에 혼다 뉴 오딧세이 '귀가 에스코트'

미즈메디병원, 10가족 혜택

미즈메디병원은 혼다코리아와 함께 말띠 신생아와 그 가족을 혼다코리아의 신차 '올 뉴 오딧세이'로 집까지 안전하게 의전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출산 후 몸이 불편한 산모와 어린 신생아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집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미즈메디병원은 추첨을 통해 총 10명의 신생아와 가족을 선정했으며 이들에게 올 뉴 오딧세이와 서승 기퍼의 기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병원 측은 아기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자랑용 백시트 정리망과 햇빛 가리개 등의 육아용품도 선물로 증정했다.

미즈메디병원 관계자는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움직여야 하는 조심스러운 첫걸음에 넓고 안전하다고 알려진 혼다의 오딧세이를 의전차량으로 제공하면서 많은 산모들의 관심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미즈메디병원은 출산 건수가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은 병원으로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제왕절개 분만이 낮은 병원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정혜인기자

이대의료원 '강서 의료 관광특구' 개발 MOU

이화여대 의료원은 서울 강서구 및 17개 특화병원으로 구성된 강서구병원협의회와 함께 의료 문화관광 특구 개발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의료산업 발전 ▲지역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사업 유치 ▲의료특구 특화사업 발굴 및 상품 개발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의료 문화 특구는 이화의료원 제2부속병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순남 이화여대 의료원장은 "제2부속병원은 선도적인 의료 문화와 의료관광 상품 등을 통해 강서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의료 문화관광 특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인기자

지난 21일 오전 서울시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 문화관광 벨트 조성 및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순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최진 강서구 병원협의회 부회장(왼쪽부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제공

'내니푸드' 엄마표 먹을거리 안 부럽네

맛 좋고 영양 균형 맞춘 인스턴트 제품들, 워킹맘 고민 해결사로

일하는 엄마 '워킹맘'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 취업자는 전년보다 20만 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집안일만을 도맡아 하던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식품업계에서는 워킹맘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내니푸드'가 있다.

내니푸드란 육아도우미를 뜻하는 내니(Nanny)와 음식(Food)의 합성어로 바쁜 워킹맘들의 일손을 거들 수 있도록 간편하게 만들어지거나, 아이들을 위한 영양 성분을 꼼꼼하게 신경 쓴 음식을 의미한다.

◆아침 해결 제품

워킹맘들은 출근 준비와 아이들 등교 준비로 아침마다 전쟁을 치른다. 분주함으로 인해 아이들의 아침밥을 챙기지 못하는 것은 워킹맘들에게는 큰 고민인데 아이들의 든든한 아침을 간단하고 건강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

돌(Dole)코리아의 돌 트리플바 블루베리는 한 손에 잡히는 싱글팩으로 구성돼 아이들이 간편하게 아침 식사 대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3가지 과일과 3가지 견과, 3가지 씨앗이 들어가 풍부한 영양을 즐길 수 있고 수제 생산 방식(핸드메이드)으로 만들어져 제품 그대로의 맛과 모양을 살렸다.

농심켈로그의 '후르츠 그래놀라'는 다양한 곡물과 과일이 들어 있는 시리얼로 크랜베리, 파파야, 망고, 파인애플 등 4종류의 과일이 함유돼 상큼한 과일 맛과 고소한 곡물 맛 등 풍부한 영양가와 함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어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안성맞춤이다.

대상 청정원의 '한국의 큰컵'은 기존 청정원 컵국밥보다 용량을 늘리고 밥의 맛과 질감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얼큰 육개장 국밥', '사골 미역 국밥', '싱하이 짬뽕밥'의 세 가지 맛으로 구성됐으며 뜨거운 물을 부어 4분30초면 따뜻하고 진한 국물의 컵국밥이 완성된다.

◆건강한 간식 해결 제품

학교 생활과 방과 후 활동으로 아이들은 쉽게 출출해질 뿐만 아니라 영양소 보충도 필요하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 간식 제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풀무원다논의 '아이러브요거트'는 교실에서 장시간을 보내면서 햇볕을 직접 쬐는 시간이 부족해 결핍되는 비타민 D에 1일 기준치 100%인 200IU와 비타민 A, B, E 1일 기준치의 20%가 각각 함유돼 추가적인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가홀푸드의 '올가 친환경 과일칩 3종'은 생과일을 기름에 튀기거나 굽지 않고 동결 건조시켜 과일 고유의 맛과 향은 물론 천연 식이섬유, 무기질 등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저녁 건강 간식 해결 제품

퇴근 시간이 늦은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이들은 출출해진다. 이 시간 동안 자극적이고 고열량의 간식을 먹게 되면 소아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건강하고 가벼운 간식을 미리 준비해주는 것이 좋다.

대상 청정원의 '고구마츄'는 설탕과 합성감미료를 전혀 넣지 않고 신선한 고구마만을 바로 쪄서 말린 제품이다. 100% 고구마 외에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은 자연 건강 간식이다. 다이어트에 관심 있고 첨가물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이다.

썬넛트 '하루견과'는 건강에 좋은 견과류가 하루 권장 섭취량에 맞게 개별 포장돼 있다.

/정한철기자 nme@metroseoul.co.kr

'건강한 물' 고로쇠 수액 드세요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는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빨리 출하한 고로쇠 수액을 24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고로쇠 수액은 일반 자연수에 비해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월등히 높다.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는 지리산, 대원 물봉도, 남양주 수동 경기도 가평 등지에서 채취한 고로쇠 수액을 1.5ℓ는 7000~6500원, 9ℓ는 3만2000~4만3100원에 판매한다.

/농협유통 제공

새학기 자녀 '보양음료'가 필요해

신학기 시즌을 맞아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은 고민이 많다. 겨울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아이들이 개학을 맞아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까지 맞물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식음료 업계에서 어린이들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기 위한 다양한 아이 맞춤형 식음료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약품은 아이들을 위한 홍삼 건강기능식품 '홍짱'을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은 국내 어린이 홍삼 제품 중 홍삼 함량이 8㎎으로 가장 높으며 성장기 아이들의 기억력 개선과 면역력 증진, 피로 해소에 좋은 건강음료다.

매일유업은 유아용 주스 '맘마밀 요미요미 야채와 과일'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채소와 과일을 싫어하는 아이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슬러시 타입의 과일 채소주스로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이 함유돼 아이의 비타민, 식이섬유 섭취에 좋다.

대상웰라이프는 어린이용 녹즙 '튼튼아이 맛있는 녹즙'을 출시했다. 녹즙에 파인애플과 열대과일을 가미해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녹즙에 클로렐라추출물과 식물성 유산균을 더해 아이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정한철기자

'육식가족' 졸업·입학 축하 외식비 홀쭉

강강술래 할인 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새 출발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파격적인 봄 마중 이벤트를 벌인다.

상계점은 내달 13일까지 주중에 소고기류를 시킨 고객에겐 한우불고기를, 돼지고기류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를 주문한 인분 수만큼 나갈 때 포장해준다(정식·세트메뉴·테이크아웃 제외). 한돈 돼지양념구이, 한우불고기, LA갈비 포장 상품도 1팩을 사면 1팩을 더 주는 '1+1 행사'를 벌인다.

시흥점도 다음달 14일까지 평일에 돼지양념구이 메뉴를 시키면 먹은 인분 수만큼 나갈 때 동일 메뉴를 무료로 포장해주며 강강술래 한돈 돼지양념구이와 한우불고기 포장 상품 1+1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정식·세트메뉴·테이크아웃 제외).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쇼핑몰(www.sulla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산 환절기 기력 보충과 면역력 증진에 좋은 가정간편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500㎖×10팩·30인분)는 6만4800원, 소용량 세트(350㎖×10팩·20인분)는 3만78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정한철기자

KT&G '보헴 쉐이크' 나온다

KT&G는 국내 최초로 3중 특수 필터 안에 캡슐을 넣어 담배 개비를 흔들면 소리가 나는 '보헴 쉐이크(Bohem Shake)'를 오는 26일 출시한다.

이 제품은 국내 담배에 적용된 캡슐 중 최고 크기인 직경 4.5㎜의 몬스터 캡슐을 적용해 터트리는 순간 부드러운 일반 담배 맛이 고강도의 시원하면서도 독특한 맛으로 바뀐다.

신제품 보헴 쉐이크의 타르는 6㎎, 니코틴은 0.50㎎이며 가격은 갑당 2700원이다.

간편식 '셰프 메이드' 바람

업계, 유명 요리사 손잡고 외식 힘든 소비자 공략

최근 간편식(HMR) 시장에는 '셰프 메이드(Chef made)' 바람이 거세다. 식품 유통업계들이 전문 셰프와 손잡고 다양한 간편식 제품을 선보이면서 유명 셰프의 손맛이 갖든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언제든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프리미엄 간편식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소비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작은 투자만으로 큰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구매 트렌드를 의미하는 '스몰 럭셔리(Small luxury)'를 즐기려는 소비 행태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셰프 메이드 간편식, 일명 '미니 비스트로' 제품도 유명 셰프의 고급 레스토랑 대신 쉽게 구입이 가능한 제품으로 셰프의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대상 청정원은 프리미엄 요리안주 '쿠킨(Cook in)'을 선보이고 있다. '미늘찜닭', '안동식찜닭', '매운닭문찜' 3종으로 출시됐으며 '셰프 메이드'라는 점이 특징이다. 특일급호텔 경력과 국제요리경연대회 수상 경험을 가진 김규진 셰프가 제품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

동원F&B에서 선보인 '쉐프메이드 스파게티 소스'는 이탈리안 전문 요리 셰프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이다. 전 신라호텔 수석 주방장인 박송준 셰프의 자문을 받아 기획됐으며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롯데제과의 프리미엄 안주과자 '주(酒)셰프'는 이태원 '핫토리키친' 손지영 셰프의 레시피로 만들어졌다. 집에서 가볍게 한잔할 때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안주 과자로 아몬드콤보와 치즈콤보 2종으로 출시됐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도 유명 셰프와 손잡고 자체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과 함께 한식을 메뉴로 한 간편식 요리 '홈셰프' 시리즈 5종을 선보였다. 미니스톱 역시 에드워드 권을 내세운 '에드워드 권의 코코넛 돈까스 도시락'을 출시해 선보이고 있다. 에드워드 권 셰프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만들어 돈가스 전문점 수준의 수제 돈가스 맛을 편의점에서도 언제든지 즐길 수 있게 됐다.

/정하람기자 ariesjb

'부츠의 척추' 키퍼 꼭 사용

겨울부츠 보관 전 잠깐!

겨우내 잘 신고 다니던 부츠를 신발장에 들여놓을 때다. 고가의 부츠를 내년에도 새것처럼 신으려면 세심한 손질은 필수다. 토털 패션 브랜드 이에프씨 관계자는 "일반 구두약뿐 아니라 가죽 클리너, 스웨이드 전용 제품 등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손질할 수 있다"며 부츠 보관 전 관리법을 소개했다.

◆가죽부츠-구두약 우유로 코팅

가죽부츠는 흠집이 난 상태로 장기간 둘 경우 소재가 빨리 상하고 색이 변하기 쉽다. 스크래치 난 가죽부츠에는 같은 색상의 가죽 전용 크림을 바른 뒤 천으로 살짝 문지르면 흠집도 가려지고 굳어버린 가죽의 결을 살릴 수 있다. 그다음 그늘에서 말리는 게 좋은데, 조급한 마음에 헤어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을 활용했다가는 가죽이 뒤틀린다.

가죽부츠는 신발장에 보관하기 전 왁스 타입의 구두약이나 우유를 마른 헝겊에 묻혀 닦으면 코팅막이 형성돼 다시 꺼내 신을 때까지 윤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때 신발 안에 전용 키퍼나 신문지를 말아 넣어두면 신발 형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스웨이드부츠-오염은 지우개로

스웨이드는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사랑받는 소재지만 가죽보다 쉽게 오염되고 먼지가 달라붙는 경향이 있다.

스웨이드 부츠는 먼저 넓은 솔로 표면과 주름 부분을 쓸어내려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염 부위는 전용 지우개나 고무 지우개로 부드럽게 문질러 제거한다. 오염 정도가 심한 경우 전용 세제를 사용한다.

물에 젖은 경우 마른 수건으로 부드럽게 눌러 둬어 완전히 말린다. 휴지로 문지를 경우 오히려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한다.

◆레인부츠-그늘에 거꾸로 세워 건조

최근 니트 양말과 함께 겨울철 방한부츠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레인부츠는 통기성이 떨어져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퀴퀴한 냄새가 날 경우 마른 수건으로 신발 앞코의 물기까지 완벽하게 제거하고,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 거꾸로 세워 말린다. 또 신발 안에 신문지에 녹차 티백이나 커피 찌꺼기를 함께 말아 넣으면 습기 및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

/김지민기자 star@metroseoul.co.kr

겉옷처럼…패션 좀 아는 '캐주얼 속옷'

게스, 리바이스 등 2030 겨냥 개성있는 디자인 제품 인기

최근 속옷 시장에서 화려한 색상과 파격적인 디자인을 갖춘 '패션 언더웨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게스, 리바이스 등 캐주얼 브랜드들이 '속옷도 패션'이라는 콘셉트를 앞세워 비비안·비너스와 같은 전통 란제리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주로 20~30대 젊은층을 공략,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모습이다.

패션 언더웨어의 가장 큰 특징은 겉옷 못지않은 강렬한 색상과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디자인이다. 또한 어깨끈과 등라인에 디테일을 살려 노출 시 포인트 액세서리 역할을 톡톡히 한다.

남성 제품의 경우 바지의 핏을 손상시키지 않는 드로즈(몸에 밀착되는 사각팬티)가 90% 이상을 차지하며 색상도 화려하다. 여기에 유행하는 바지 핏에 맞춰 아웃밴드의 위치와 두께를 조정하는 등 패션의 흐름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게스 언더웨어는 화려한 프린트와 네온 색상의 제품을, 리바이스 보디웨어는 데님 팬츠와 잘 어울리는 아웃밴드를 적용한 아이템을 주로 선보이고 있다.

/박지원기자

뉴스 & 뉴스

아식스 워킹화 'G1' 출시

●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 코리아는 워킹화 'G1' 8종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신제품은 갑피에 전개된 무재봉 기법을 사용, 지난해 출시된 G1보다 착화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안정성을 높이고 쿠셔닝도 보강했다. 운동화 무게도 가벼워 장시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색상은 옐로 블루·민트·스카이블루·다크그레이·오렌지 등 8종으로 가격은 9만5000원이다.

미백용 '··더 퍼스트 에센스'

● 네이처리퍼블릭은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은 원액 에센스 효모발효 더 퍼스트 에센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품은 용천 동굴에서 보관해 시계절 내내 신선한 제주산 청정 쌀을 희산 암반수로 발효해 만들었다. 주성분인 효모발효물은 누룩을 띄워 술을 빚는 전통 발효 기법을 적용하고 체온과 동일한 36.5도에서 72시간 동안 숙성시켜 피부 구성 성분과 유사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초록 멤버십 회원에게 다음달 23일까지 이 제품에 30% 할인 혜택을 준다.

엄정화와 파격 베드신 촬영 걱정에 잠 설쳤죠

영화 '관능의 법칙' **이재윤**

이재윤(32)은 마치 오랫동안 한 곳에 우뚝 서 있는 키다리 나무 같다. 다부진 체구의 그는 지난 10여 년간 묵묵하게 한눈팔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오며 연기 내공을 쌓아왔다. 최근 영화 '관능의 법칙'과 MBC '황금 무지개'로 스크린과 안방극장에서 동시에 대중과 만나는 이재윤은 "이번처럼 두 작품의 활동을 함께 하는 건 처음이다. 체력이 좋아 문제 없다"고 말하며 서글서글한 눈매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 부담됐던 베드신 느낌 따라 몸 맡겨

'관능의 법칙'은 40대 세 여성의 인생과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영화 속의 이재윤은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 실제로 열다섯 살이나 많은 엄정화에게 극중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외주 제작사 새내기 PD 현승으로 나오는 그는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훤히 드러내 여성 관객의 시선을 붙든다.

얼마 전 한 방송에서 엄정화에게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으며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한 이재윤은 "어소룡을 좋아해서 어릴 적부터 킥복싱, 무에타이, 브라질 유술, 크로스핏 등 운동을 취미로 즐겼다"며 "젊을 때 좋은 몸매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좋은 배우로 기억되고 싶다"고 바람을 이야기했다.

사실 출연을 앞두고 노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망설였다고 털어놓았다. 엄정화와의 베드신 촬영 전날엔 걱정에 잠을 설치기도 했다. "연기를 잘해보려고 베드신이 나온 영화를 많이 찾아봤더니 나중에 야한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재윤이 영화 '관능의 법칙'(왼쪽)과 MBC 주말극 '황금무지개'에서 반전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15세 연상녀에 적극 구애하는 PD 역 | 근육질 몸매 '눈길'
'황금무지개'선 순수매력 | "연애방식 현승·만원 사이"

"막상 촬영에 들어갔더니 콘티도 없어서 그냥 서로의 느낌에 따라 몸을 맡기고 부딪치며 해보자는 생각으로 임했어요. 여자 스태프들 앞에서 벗고 있으니 부끄러웠지만 카메라 앞이니까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드라마서는 순수한 반전 매력

저돌적으로 구애를 펼치는 영화 속 모습과 달리 '황금 무지개'에서는 짝사랑으로 가슴앓이만 하는 중이다. 남매처럼 함께 커온 백원(유이)을 오빠로서 오랜 세월 묵묵하게 지켜주면서도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만원 역할을 맡아 거칠면서도 순수한 매력을 과시한다.

"비록 드라마지만 짝사랑 연기는 힘들어요. 혼자서만 계속 바라봐야 하니까요. 만원이로 몇 달간 살았더니 백원에 빠져들어서 질투가 생기나 봐요."

실제로는 현승과 만원 중 어느 쪽에 가깝느냐고 묻자 "현승이처럼 적극적으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만원이처럼 담담하게 짝사랑만 하지도 않는다. 멀리서 지켜보다가 마음이 맞는 것 같으면 다가서고 사소한 배려를 한다"고 현실적인 사랑법을 밝혔다. 이어 "내가 감당해낼 수 있다면 연상이든 연하든 나이는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두 작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그는 "인지도는 크게 높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작품을 꾸준히 해왔다"면서 "대중의 관심이 조금씩 높아져 기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지금은 연기를 재미있게 즐겨보자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평소 하루 두 편씩 빠짐없이 영화를 볼 정도로 연기를 좋아하는 배우다. "얼마 전에는 '인사이드 르윈'을 재미있게 봤어요. 무일푼 뮤지션의 이야기가 배우를 준비하는 삶과 비슷한 것 같아서 공감이 됐죠. 연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겐 행복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많은 사람이 '아! 이 배우가 이재윤이구나'라고 알아주시지 않을까요."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사진/이동희(라운드테이블) 디자인/박은지

소녀시대·2NE1 자존심 경쟁 시작됐다

소시 먼저 음원 공개에 2NE1 26일 발표로 대결 본격화

최강 걸그룹의 자존심을 건 소녀시대와 2NE1의 대결에 불이 붙었다.

컴백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던 소녀시대는 예정대로 24일 오후 5시 새 앨범의 모든 음원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미니 4집 '미스터미스터'에는 동명의 타이틀곡은 물론 소녀시대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발라드·댄스·신스팝 등 다양한 장르의 6곡이 담겨있다.

앨범 음반은 27일 오프라인에 출시되며, 소녀시대는 다음달 6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신곡의 첫 무대를 연다.

'미스터미스터'는 R&B 사운드가 돋보이는 댄스곡으로 세계적인 프로듀싱팀 더 언더독스가 작업함은 물론 퍼포먼스 역시 유명 안무가 질리언 메이어스가 맡아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과 무대를 예고하고 있다.

당초 소녀시대는 19일 타이틀곡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24일 앨범을 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의 데이터 일부가 편집 과정에서 소실돼 공개 일정을 재논의했다. 예의 프로모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뮤직비디오는 추가 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며 향후 글로벌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2NE1은 이틀 뒤 정규 2집 '크러시'의 수록곡 10곡으로 맞불을 놓는다. 타이틀곡 '컴 백 홈'을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했고, '너 아님 안돼'를 더블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다. 씨엘의 자작곡 3곡을 수록해 음악성을 부각시켰다. 무려 4곡의 뮤직비디오를 릴레이로 공개하는 전략으로 맞선다.

24일 소속사 공식 블로그에는 '컴 백 홈'으로 활동했던 새하지가 썼던 'S' 로고가 들어간 비니를 착용한 산다라박의 티저 사진이 공개됐다.

앨범 출시 전부터 활동 시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소녀시대와 2NE1의 경쟁은 국내 차트를 넘어 해외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유순호기자 ssunho@metroseoul.co.kr

맞대결을 벌일 소녀시대와 2NE1이 앨범 발매에 앞서 각각 공개한 요연과 신 ... 티저 이미지

	소녀시대	2NE1
발표작	미니 4집 '미스터미스터'	정규 2집 '크러시'
수록곡 수	6	10
타이틀곡	'미스터미스터'	'컴 백 홈' '너 아님 안돼'
음원 출시일(온라인)	2월 24일 오후 7시	2월 26일 밤 12시
앨범 발매일(오프라인)	2월 27일	3월 7일
뮤직비디오 공개 일정	미정	'컴 백 홈' 두 가지 버전(2월 28일) '너 아님 안돼' '헤다'(미정)
신곡 첫 무대	3월 6일 엠넷 '엠카운트다운'	3월 1일 월드투어 'AON' 서울 공연

SG워너비 김용준 돌아왔다

신곡 '이별 영화 한 장면' 발표

SG워너비의 김용준(사진)이 병역을 마치고 신곡으로 컴백한다.

그는 작곡가 겸 프로듀서 신인수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앨범 '더 5'에 수록되는 신곡 '이별 영화 한 장면'을 24일 발표했다. 신인수는 플라이투더스카이의 '가슴 아파도', 엠씨더맥스의 '가슴아 그만해', 다비치의 '빛 스타프' 등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다. 김용준은 다비치·걸스데이·예즈윈&미스에스에 이어 네 번째 주자로 이번 앨범에 참여했다.

'이별 영화 한 장면'은 감성적인 멜로디와 후반부로 갈수록 풍아지는 스트링이 인상적인 미디엄 팝 발라드다. 엠씨더맥스의 '그대가 분다', 소유X정기고의 '썸'에서 감각적인 가사를 쓴 만연재가 노랫말을 더했나. 또 신예 래퍼 빌리언이 피처링을 맡았다.

3인조 보컬그룹 SG워너비의 멤버로 수많은 히트곡을 불렀던 김용준은 지난 14일 소집해제됐고, 이번 신곡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유순호기자

3D 홀로그램으로 日팬 홀린 빅뱅

'YG 엑시비션' 개최 … 가수와 사진 찍는 듯한 '라이브 포토 서비스'도 마련

빅뱅(사진)이 3D 홀로그램으로 일본 팬들을 홀렸다.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일본 지바현 기사라즈시에 위치한 쇼핑몰 미츠이 아울렛파크 기사라즈에 'YG 엑시비션'을 열었다. 빅뱅은 개막 하루 전 전시장을 방문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4월 20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빅뱅과 2NE1·싸이 등의 홀로그램 공연은 물론 이들이 실제 무대에서 입었던 의상과 애장품을 전시한 'YG컬렉션', 가수와 실제 사진을 찍는 듯한 경험을 하는 '라이브 포토 서비스' 등의 코너가 마련됐다.

영화 촬영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탑을 제외한 빅뱅 멤버 4명이 현장에 도착하자 팬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빅뱅이 등장한 이후 이어진 3D 홀로그램 상영 시사회는 빅뱅·2NE1·싸이 등이 마치 눈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듯한 실감 나는 영상과 특수효과를 선사해 현지 팬들을 놀라게 했다.

산케이스포츠·데일리스포츠·스포니치·오리콘뉴스 등 현지 주요 언론들이 이번 행사를 집중 소개했다. TV도쿄는 "영상인지 본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는 일본 팬의 감상평과 함께 "빅 뮤스타가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세계 어디서든 공연이 가능하다. 콘텐츠를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 한국에서는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순호기자

인피니트 월드투어 앙코르서 신곡 깜짝 공개

인피니트(사진)가 월드투어 서울 앙코르 공연에서 신곡 3곡을 발표한다.

이들은 28일과 다음달 1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콘서트 '원 그레이트 스텝 리턴즈'에서 이례적으로 3개의 신곡을 보탠 새로운 무대를 꾸민다. 인피니트는 아직 다음 앨범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월드투어에 매진하면서 앨범 활동을 하지 못해 팬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준비했다.

인피니트 멤버들은 서울 앙코르 공연을 앞두고 멤버별 포스터는 물론 촬영장 미공개 컷 등을 공개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콘서트는 지난 월드투어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완벽한 연출과 스펙터클한 구성으로 팬들의 열기에 응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 예매는 시작과 동시에 2만 장의 티켓이 모두 팔려나가는 열기를 보였다.

/유순호기자

로이킴 가을 두번째 정규앨범 발표

CJ E&M과 전속계약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로이킴(사진)이 올가을 두 번째 정규앨범을 발표한다.

CJ E&M은 24일 "로이킴이 CJ E&M과 전속계약을 맺고 올 하반기 정규앨범과 콘서트로 활동을 재개한다"며 "현재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로이킴의 상황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해 학업과 음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킴은 미국에서 학업과 함께 곡 작업에 매진해 정규앨범을 완성할 예정이다.

2012년 엠넷 '슈퍼스타K 4' 우승자인 로이킴은 지난해 디지털 싱글 '봄봄봄'과 정규 1집 '러브 러브 러브'를 연이어 히트시켰다. 현재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유학 중이다.

/유순호기자

2013.08.30
Open Run!
대학로 스타시티
TM스테이지
화~목 8시 / 금 5시, 8시 / 토 3시, 6시 / 일(공휴일) 2시, 5시
공연문의
02-766-0830

프로듀서 | 이상원 연출/작 | 이주영 무대감독 | 김지영 조명 | 조성오 무대 | 김희진

1544 1555

우희 스크린 데뷔

공포물 '터널 3D' 캐스팅

걸그룹 달샤벳의 멤버 우희(사진)가 스크린에 데뷔한다.

24일 소속사에 따르면 우희는 3D 공포영화 '터널 3D'에 메인 역으로 캐스팅됐다.

폐탄광 지역을 개발해 만든 고급 리조트로 여행을 간 20대 남녀들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겪는다는 내용의 이 영화에서 우희는 리조트 주인의 딸이자 정부지 상속녀를 연기한다.

우희는 "캐릭터를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많은 응원 부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웹툰작가 주호민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드라마 '무한동력'으로 배우 신고식을 치렀다. tvN '응답하라 1994'에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다.

정유미·연우진·도희에 이어 우희의 출연을 확정 지은 '터널 3D'는 4월까지 촬영을 마무리한 뒤 여름에 개봉할 계획이다. /탁진현기자

대세남 컴버배치 특별전

대세남 베네딕트 컴버배치(사진)의 모든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린다.

CGV 무비꼴라쥬는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3월 '이달의 배우'로 선정하고 그의 주요 작품을 모은 기획전을 전국 5개 CGV 무비꼴라쥬 전용관에서 개최한다. 컴버배치는 2010년 시작된 영국 드라마 '셜록'으로 단숨에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출석조 연기를 펼쳤으며 영국 매거진 엠파이어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배우로 선정했다.

이번 기획전에는 인간의 악한 본성과 노예제도라는 악습 사이에서 고뇌하는 노예주를 연기한 '노예 12년'을 비롯해 어두운 카리스마의 테러리스트 역으로 출연한 '스타트렉 다크니스', 부모에게 얹혀사는 천진한 노총각을 연기한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 쟁쟁한 연기파 남자배우 사이에서 뛰어난 열상블 연기를 보여준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등 네 편이 소개된다.

다음달 6~19일 CGV구로와 대구, 13~19일 압구정, 20일~4월 2일 소풍과 천안펜타포트에서 상영된다. /유순호기자 suno@

와~ 고공액션 오~ 스릴만점 추리

film review

■논스톱

리암 니슨 주연 영화 비행기 안 테러 다뤄

런던으로 가는 뉴욕발 비행기 안.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한 미 항공수사관 빌 막스(리암 니슨)는 의문의 협박 메시지를 받게 된다. 그것은 바로 "1억5000만 달러를 입금하지 않으면 20분마다 승객 한 명씩 죽이겠다"는 것. 4만 피트 상공 위 비행기라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범인은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메시지의 예고대로 20분마다 사람들이 죽어가자 승객들 사이에선 동요가 일기 시작한다.

150명의 탑승객과 기장·승무원들까지 모두가 용의자이자 인질인 상황 속에서 빌은 되레 테러범으로 몰리고 양쪽의 압박 속에 범인을 잡기 위한 그의 고독한 사투가 시작된다.

영화 '테이큰'을 통해 국내에서도 액션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는 리암 니슨이 이번에는 고공 액션으로 돌아왔다.

27일 개봉 예정인 영화 '논스톱'(사진)은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는 테러 상황을 소재로 범인을 추리하고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리암 니슨식 고공 액션 블록버스터다. 비행기 납치라는 사건 아래 모든 승객이 용의자가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범인의 메시지를 통해 긴장감을 준다.

이 영화는 니슨을 통해 함께 범인을 찾아가는 추리의 재미와 1평 남짓한 기내 화장실 등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선보이며 전형적인 액션 영화의 계보를 잇는다. 리암 니슨 표 액션은 예전에 이슬아슬한 스릴과 강한 액션을 자랑하며 그의 연기를 기대했던 팬들에게 충족감을 준다.

또 JFK공항과 아일랜드공항에서의 일부 장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면들도 실제 대형 항공기의 규모와 시스템으로 재현해 현장감을 살렸다.

하지만 어린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고난, 납치와 혼자만의 싸움 등 니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오차 없이 답습하고 있어 식상한 느낌도 준다.

한편 벌어 범인과 유일하게 소통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한국어로 표현돼 눈길을 끈다. 이 문자메시지 장면은 한국 개봉관에서만 선보이는 것으로 해외 제작사에서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고 한다. 15세 이상 관람가.

배우 심은경의 힘!

'수상한 그녀' 역대 여배우 주인공 무비 흥행 1위

심은경(사진) 주연의 영화 '수상한 그녀'가 '써니'를 쉬고 역대 여배우 주연 영화 중 흥행 1위에 올랐다.

스무 살 꽃처녀(심은경)의 몸으로 돌아간 욕쟁이 칠순 할매(나문희)가 난생처음 누리게 된 빛나는 전성기를 그린 이 영화는 23일까지 누적 관객 수 769만2397명을 동원했다.

이번 일로 심은경은 3년 만에 자신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진기록을 세우며 충무로를 이끌어갈 차세대 여배우 대열에 합류했다. 2011년에 개봉한 '써니'는 심은경의 대표 주연작이자 이전까지 역대 여배우 주연 영화 중 최고 스코어(736만2467명)를 보유하고 있던 흥행작이었다.

'수상한 그녀'는 '써니'를 넘어 역대 휴먼 코미디 톱 3에도 올랐다. 1위와 2위는 각각 '7번방의 선물', '과속스캔들'이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수상한 그녀'는 앞서 개봉 5일 만에 100만, 9일 만에 200만, 11일 만에 300만, 13일 만에 400만, 18일 만에 500만, 21일 만에 600만, 27일 만에 700만 명을 동원하며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개봉 5주차 주말에도 15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는 흥행세를 과시하고 있어 이번주 중 800만 관객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현희기자

'인생역전' 폴포츠 온다

자전적 영화 '원챈스' 홍보차 내달 2일 내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인 오페라 가수 폴 포츠(사진)가 내한한다.

영화 '원챈스'의 배급사 NEW는 24일 "폴 포츠가 다음달 2일 한국을 방문해 4일 CGV영등포에서 열릴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행사를 소화할 예정"이라면서 "한국 팬들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 포츠의 내한은 다음달 13일 개봉할 '원챈스'를 홍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영화는 2007년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우승한 후 평범한 휴대전화 판매원에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된 폴 포츠의 무대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담은 실화 영화다.

특히 폴 포츠는 2011년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될 만큼 한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탁진현기자 tak0427@

“결혼경험이 연기 도움”

'앙큼한 돌싱녀' 이민정 밝혀

배우 이민정이 결혼 후 첫 연기로 이혼녀를 택하는 과감한 행보를 시작했다.

MBC 새 수목극 '앙큼한 돌싱녀'(27일 첫 방송)의 주연을 맡은 그는 24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결혼하지 않았을 때 했다면 모르는 게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부족하지만 경험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민정은 이번 드라마에서 직업도 능력도 없이 조건 좋은 남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친구 집에 얹혀살며 명품 가게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는 나애라를 연기한다. 지난해 8월 이병헌과 결혼한 이후 이 작품으로 활동을 재개해 더욱 관심을 모은다.

그는 "연애보다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 감동, 기쁨, 슬픔 등 모든 것이 배가되 깊은 감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이 작품을 보며 결혼과 이혼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민정의 상대역으로는 주상욱이 출연하며, 김규리·서강준이 이들과 호흡을 맞춘다.

연출을 맡은 고동선 PD는 "돌싱녀가 우리 사회에서 한 번 실패한 사람의 이미지로 각인되는 것 같다"며 "인생이든 사업이든 결혼이든 한 번쯤 실패했더라도 정성과 진심이 있으면 잘못이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여우들의 워킹 대결 24일 역삼동 라움에서 열린 MBC 수목 미니시리즈 '앙큼한 돌싱녀'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김규리·이민정(왼쪽부터)이 무대를 내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이동욱·이다해 8년만에 재회

배우 이동욱(사진 오른쪽)과 이다해(왼쪽)가 8년 만에 재회했다.

다음달 말 첫 방영될 MBC 새 주말특별기획 '호텔킹'의 남녀 주인공인 이동욱과 이다해가 최근 경기도 일산 MBC드림센터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첫 대본 리딩에

참여했다. 이동욱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고, 이다해는 "긴장을 안 한 척하는데 막상 이곳에 오니 긴장된다. 하지만 든든한 선후배들 덕분에 안심하면서 촬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SBS '마이걸' 이후 8년 만에 다시 연기 호흡을 맞추는 두 사람은 자리에 나란히 앉아 환상의 호흡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영기자

한 편의 영화 같은 ‘쓰리데이즈’

내달 5일 첫 방송 앞두고 포스터 공개

박유천·손현주 주연의 SBS 새 수목극 '쓰리데이즈'(사진)가 첫 방영을 앞두고 영화 같은 공식 포스터를 공개해 높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화 메인 포스터는 총을 든 경호원 한태경(박유천)과 저격 대상이 된 이동휘(손현주) 대통령의 모습에 각자의 캐릭터로 분한 박하선·소이현·윤제문·최원영·장현성의 얼굴이 짝지어 한 편의 영화 포스터를 방불케 한다.

차를 경호하는 한태경과 그 차에 타고 있는 이동휘의 모습이 담긴 또 다른 포스터는 극의 긴장감을 드러낸다.

제작사 골든썸픽쳐스는 "티저 포스터와 스틸에 이어 공개된 4종 포스터는 '쓰리데이즈'의 긴장감 넘치는 특징과 각 캐릭터의 모습을 담아냈다. 김은희 작가의 완벽에 가까운 스토리와 화려한 액션, 100억원이 넘는 제작비의 대작으로 16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드라마는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떠난 후 총성 위협에 처한 대통령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그린다. '별에서 온 그대' 후속으로 다음달 5일 첫 방송 된다.

/박준영기자 jjy0427@

조현재 사극 행사 ‘한일 우정의 페스타’ 참가

배우 조현재(사진)가 한·일 우정의 대사로 나선다.

조현재는 4월 6일 일본 도쿄 시부야 공회당과 7일 시어타마 인근 고마역에서 열리는 '한일 우정의 페스타'에 참가한다. 비영리법인인 한일문화교류회가 2008년부터 매년 4월 한국 사극을 테마로 개최해온 자선행사다.

2008년 대조영 '계신'의 최수종을 시작으로 2009년 '주몽' '바람의 나라'의 송일국, 2010년 '선덕여왕'의 김남길, 2012년 '해를 품은 달'의 정일우, 지난해 '무사 백동수'의 지창욱이 행사에 초대됐다.

2000년 드라마 '카이스트'로 연기를 시작한 조현재는 일본과 같은 관계를 맺은 삼국시대의 백제를 무대로 하는 서동요의 주연을 맡아 한류스타로 떠올랐다. 현재 8년 만의 사극이자 백제를 무대로 한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에 출연 중이다.

조현재는 "최수종 선배를 비롯해 같이 출연했던 적이 있는 정일우와 함께 문화 교류와 기부 등 좋은 취지의 행사에 참가하게 돼 영광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순호기자

미세먼지는 각종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개인 위생관리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패션은 종합예술의 완성체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이니 슬리먼은 생로랑의 수장으로 연 첫 번째 쇼에서 남다른 초대장을 뿌렸다. 그가 사람들에게 보낸 컬렉션 초대장은 검은색 노트북이었다. 매우 단순한 디자인의 노트북에는 쇼의 디자이자 단서가 실렸다. 쇼와 작품의 영감이 된 아티스트의 작품을 고스란히 담아 전달했다. 초대받은 이들은 쇼를 보기도 전에 에디 슬리먼이 보여줄 창작에 대한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오프닝 세리머니의 2014~2015 F/W 컬렉션이 화제였다. 모델들이 걷는 런웨이의 벽면은 초콜릿으로 꾸몄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향을 맡는 것은 물론 맛을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각적 만족을 주는 런웨이에 후각, 미각에 대한 자극을 덧붙인 셈이다. 오프닝 세리머니를 이끌었던 캐럴 림과 움베르토 레옹은 지난해 11월 겐조의 디렉터로 파리에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그들에게 패션은 경계 없는 꿈이다.

AVOC는 패션 브랜드 중에서도 창의성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나 최근 선보인 2014~15 F/W 컬렉션의 주제는 '도메스틱 머드니스'였다. 남녀 관계의 파괴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시리즈를 내놓은 것이다. 이 컬렉션은 마치 연극이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연출을 자유롭다. 제작된 화보를 보면 사진만 봐도 앞뒤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다. 옷으로 시선을 끌고, 이야기로 사람들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다.

패션은 평범해졌다.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과거처럼 이해하지 못하면서 패션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걸치는 일은 없다. 오히려 수많은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가치를 매긴다. 디자인 자체에 대한 효용보다 디자이너의 철학과 그가 보여주는 행위에 대한 의미를 더 중요시한다. 패션은 종합예술의 완성체로 탈바꿈되고 있다. 완제품 산업에서 콘텐츠 산업으로 바뀐 것이다. 창의적 디자인보다 단단한 메시지가 더 중요해졌다.

패션 시장이 보영과 색상이 아닌 철학과 사상의 유통 공간이 된다? 디자인할 맛이 나겠다.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4	5	7	9			
7			6		1		5	
		9					7	3
		3						
9	4						2	1
						9		
4	5					1		
	8		9		5			6
			7	1	2	5		8

		3		1		9	6	
					6	7	1	
	5	1						8
	8			9				3
	3	7	8		4	1	5	
1				5			8	
3						8	7	
	4	2	6					
	7	6		8		2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벗누스
*엔시 스도쿠 리미티드 |아이클리오스 자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남편과 10년 넘게 남처럼 지내 자존심 강해 끝까지 가정 지켜

복덕화 여자 62년 5월 24일

Q 남편이 10여 년 전 바람을 피운 것 같은데 증거가 없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걸 어찌 믿겠습니까? 쇼윈도 부부로 각방을 쓰면서 하루에 대화 한마디 안 하고 남처럼 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A 자살(自殺)과 남편이 면지(面地: 떠이난 연도)에 멀리 떨어져 있어 동래 정이 없는데 과거에는 잘나가다 지금은 절지(絶地)에 있으니 남편이 운도 못 넘어오게 되어 지금은 남편 같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남편은 보스 기질에 성격이 강직하며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나름대로는 남편의 권위를 복권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가정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귀하의 관성(官星: 남편)운이 사묘절(死墓絶)에 들어 묘지에 들어가 던져둔 꼴로 가고 귀하에게는 귀문살(鬼門殺: 귀신이 들락거리듯 비정상)이 있어 다소 우울증과 피해망상이 있습니다. 울행을 만들고 그 울행으로 속을 썩이고 있으니 생각을 단순하게 해보십시오.

집에 도둑 들어 연내 이사계획 변동운 좋지만 멀리 가지 말길

손막기 여자 89년 5월 14일 음력 오후 4시5분

Q 최근 집에 도둑이 들어오려고 했고, 몇 년 전에도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제 사주의 신변 운세를 참고해서 올해 안에 이사를 가도 좋은지, 이사 갈 집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인상생(官印相生: 관직과 문서운을 다 타님)으로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관생재(傷官生財: 재물을 생해주는 것)가 되어 예측이 잘 맞으며 이사할 수 있는 변동운은 있으니 이사하시되 정재편관(正財偏官)운이므로 먼 이동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삼살방이나 대장군 방향 및 정동쪽이나 정북쪽은 피하고 만약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사의 액점을 피하기 위해 짐을 싣고 10리를 돌아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모두 미신 같은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지면관리 요법으로 알고 참고하세요. 지방으로 가야 한다면 이사 한 후 11~12월부터 2015년 내내 삼각관계의 이성을 만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희롱할 땐 냉정에 신경 써라. 60년생 돈은 떨어진 돼지를 모은다. 72년생 돈이 오가는 일은 원칙에 엄격할 것. 84년생 손꼽아 기다리던 기회가 온다.

소 49년생 배우자의 섭섭한 말에 심난하구나. 61년생 일생 않은 일에서 발 빼라. 73년생 피날 싸움이 휘말리면 잃는 게 더 많다. 85년생 연인의 기쁨에 대리만족.

호랑이 50년생 좋고 나쁨을 너무 구분하지 마라. 62년생 불운이 한 끝에 종지부 찍는다. 74년생 반짝 관심에 도취되지 마라. 86년생 사랑의 줄다리기에 점은 깊어진다.

토끼 51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게 된다. 63년생 돈 때문에 망신에 휘말려 나지 않게 하라. 75년생 거친 파도가 훌륭한 선장 만든다. 87년생 변동보다 현상에 충실할 것.

용 52년생 문단속에 각별히 신경 써라. 64년생 공직자는 뒷문 사생활이 문제된다. 76년생 어려울 때는 능력을 보여줘라. 88년생 억울한 누명을 우연히 벗게 된다.

뱀 53년생 환고해온 듯 들리는 사람만 는다. 65년생 약속 지키는 데 신경 써라. 77년생 철 지난 이야기는 공감 못 얻는다. 89년생 이미지 개선에 투자 아끼지 마라.

말 42년생 희미가 비치다 불조심. 54년생 목표가 너무 과하면 짐이 된다. 66년생 남득 안 되는 배우자의 행동에 얼굴 질. 78년생 성과는 적지만 자신감은 커진다.

양 43년생 기회이 취욕적 만사형통이다. 55년생 주택 구설 분명히 하라. 67년생 민정에 끌려다니면 구설수에 오른다. 79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병하는 일 이룰 듯.

원숭이 44년생 돈과 관련된 일은 문서화할 것. 56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68년생 직장인은 서운한 일 있어도 참아라. 80년생 친구라고 다 도움되는 건 아니다.

닭 45년생 특별한 건 없지만 유쾌. 57년생 낙천적으로 생각하면 심신이 편안. 69년생 새 길 찾으려면 절박한 이유가 꼭 필요. 81년생 민감한 문제일수록 유연할 것.

개 46년생 지붕옷 행운에 맞춰라. 58년생 자녀가 전혀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 전한다. 70년생 남쪽이 약속의 땅이니 참고할 것. 82년생 공들인 일은 잘 풀린다.

돼지 47년생 자손에게 경사 생긴다. 59년생 재물이 들고 나감이 왕성하구나. 71년생 연수가 많이 낙관은 아직 이르다. 83년생 신변에 좋은 변화가 있으니 기대하라.

'초조한' 윤석민

볼티모어 선발경쟁 본격 돌입… 다음달 7~9일 데뷔전 치를 듯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윤석민(28·사진)이 메이저리그 선발 진입을 위한 마지막 역투를 펼친다.

볼티모어 지역언론 MASN은 24일 사흘 뒤 열릴 자체 평가전을 시작으로 스프링캠프 기간 펼쳐질 볼티모어 경기의 투수진 등판 일정을 공개했다. 윤석민의 출전할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다음달 7일 탬파베이, 8일 필라델피아, 9일 보스턴과의 경기 중 한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를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벅 쇼월터 감독은 최근 자유계약선수(FA)로 영입한 우발도 히메네스와 윤석민의 등판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고, 기존 예상된 1~5선발 투수들의 상태를 먼저 점검한다.

27일 자체 평가전에는 윤석민이 5선발 진입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브라이언 매슈스(27)와 케빈 거스먼(23)이 선발로 등판해 1이닝씩을 소화한다. 지난해 중간계투로 뛰었던 매슈스와 2012년 드래프트 1순위로 입단한 유망주 거스먼은 벅 쇼월터 감독이 5선발 후보로 꼽은 투수들로,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윤석민과 선발 진입 경쟁을 펼친다.

선발 로테이션 진입이 유력한 천웨이인(29)과 버드 노리스(29)는 28일 자체 평가전에 선발 등판한다. 지난해 16승(7패)을 거두며 볼티모어 1선발 역할을 했던 크리스 틸먼(26)은 다음달 1일 탬파베이 레이스와 시범경기 개막전에 선발로 나서고, 쇼월터 감독이 주목하는 왼손투수 잭 브리튼(27)이 틸먼에 이어 등판한다.

2일 토론토와의 시범경기에는 선발 미겔 곤살레스(30)가 선발로 나선다.

윤석민은 아직 미국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다음달 5일 이후 마운드에 설 예정이다. 윤석민은 지난 20일 볼티모어 전지훈련에 합류해 두 차례 불펜피칭을 했다. 이번 스프링캠프에서의 성적에 따라 메이저리그 선발이냐 중간계투, 마이너리그 트리플A 선발 등 올 시즌 보직이 결정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느긋한' 류현진

이벤트성 평가전 2이닝 3실점… 동료 놀림도 받아

류현진(27·LA 다저스·사진)이 시즌 첫 등판에서 '괴물' 본색을 숨기고 느긋한 투구를 펼쳤다.

류현진은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카멜백 랜치스타디움에서 열린 LA 다저스 자체 평가전에 선발로 나서 2이닝 4피안타 2피홈런 3실점으로 부진했다.

1회초 선두타자 디 고든에게 우월 솔로 홈런을 맞은 그는 후안 유리베에게 2루타, 핸리 라미레스에게 투런포를 허용하는 등 첫 아웃카운트를 잡기도 전에 내리 3점을 내줬다.

2회에는 유격수 실책으로 주자를 내보냈지만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이닝을 끝냈다. 4회까지 열린 경기에서 류현진이 속한 팀이 1-3으로 패했다.

이날 경기는 다저스 선수들 간의 친목 도모 성격이 강했다. 외야수 맷 켐프와 투수 잭 그레인키가 각각 한 명씩 선수를 지명해 팀을 꾸렸다. 그레인키는 1순위로 류현진을 꼽았다.

친목을 위한 경기답게 다저스 동료들은 부진한 류현진을 놀려대며 웃음을 자아냈다.

미국 SB네이션은 "류현진이 홈런을 연거푸 허용하자 심대 팀은 1차 지명 선수가… 라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유리베는 2이닝을 소화하고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는 류현진에게 '괜찮아?'라고 놀리듯 물어본 뒤 가슴에 손을 얹고 (2루타를 쳐서) 정말 미안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순호기자

서울 "공격보다 실리축구 승부 건다"

AFC 챔스리그 스타트 오늘 호주와 1차전 치러

프로축구 FC 서울이 새로운 전술로 2014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나선다.

최용수 서울 감독은 센트럴코스트 매리너스(호주)와의 F조 1차전(25일·서울월드컵경기장)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공격 시스템에 적합한 선수들을 보유해 좋은 결과를 냈지만 올 시즌에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백지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은 '무공해(무조건 공격해)' 전략을 앞세워 2012년 K리그 우승과 지난해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3년 연속 득점왕에 오른 간판 골잡이 데얀과 주전 미드필더 하대성을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중국 리그로 보내 전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최 감독은 "이제 많은 골을 기대하지 못한다. 탄탄한 수비를 앞세우는 경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수 FC 서울 감독과 길 오스 센트럴코스트 매리너스 감독이 2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전을 기원하며 악수하고 있다.

센트럴코스트와의 경기는 올 시즌 서울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무대다. 서울은 공격수 하파엘 코스타(브라질), 중앙 미드필더 강승조, 수비수 오스마르 이바녜스(스페인)를 영입했다. 그러나 최 감독은 코스타가 아직 팀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해 이번 경기에는 선발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순호기자

고개드는 '한국야구 위기론'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미국과 일본 오키나와 등지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전지훈련지발 기사들이 관심을 모으는 시점이다. 그러나 소치 동계올림픽 내내 야구는 스포츠 관심사에서 비켜있었다.

빙속 이상화의 2연패, 쇼트트랙 박승희의 2관왕, 그리고 피겨 여제 김연아의 편파 판정으로 인한 은메달에 온 국민의 눈길이 쏠렸다. 국민들은 열을 넘게 감동에 젖었고 분노에 몸을 떨었다. 국가적인 스포츠 이벤트는 국민들의 눈과 감정을 하나로 묶는다.

앞으로도 두 개의 큰 대회가 기다리고 있다. 6월에는 브라질 월드컵이 열린다. 월드컵은 올림픽에 버금가는 주목을 받고 있다. 두 대회 연속 16강 진출 여부가 관심이다. 9월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이다. 야구 종목이 있어 관심을 받겠지만 문제는 시즌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한국 야구는 작년 LA 다저스 류현진 때문에 타격을 입었다. 다저스의 모든 경기가 생중계되면서 차원이 다른 메이저리그를 맛봤다. 최근 야구 르네상스라고 자부했지만 작년에는 관중이 감소했다. 올해는 추신수의 텍사스 이적, 윤석민의 볼티모어 입단으로 메이저리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돌직구 소방수 오승환 한신 입단, 이대호 소프트뱅크 이적까지 맞물려 상대적으로 한국 야구는 왜소해졌다.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류현진과 윤석민 김광현 이후로 맥이 끊겼다. 홈런타자 박병호가 등장했지만 스타급 신인들이 나오지 않는다. 콘텐츠와 스타의 부재는 위기로 이어진다.

오키나와의 일본 야구 시범경기에는 구름 관중이 몰려들고 있다. 소치올림픽과 스타급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속속 진출했지만 야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여전하다. 33년을 맞는 한국 야구는 여전히 기반이 취약하다. 관중이 조금 늘었다고 웃을 일이 아니었다. 더욱 저변 확대에 힘을 쏟을 때가 아닌가 싶다.

/OSEN 야구전문기자

우리은행, 하나외환 꺾고 정규리그 우승 눈앞

여자 프로농구 춘천 우리은행이 부천 하나외환을 힘겹게 꺾고 정규리그 우승을 눈앞에 뒀다.

우리은행은 24일 춘천 호반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여자 프로농구 하나외환과의 경기에서 4쿼터에만 7점을 몰아친 양지희의 활약에 힘입어 68-63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경기로 23승6패를 기록한 우리은행은 2위 안산 신한은행(19승10패)을 4경기 차로 따돌리며 정규리그 우승까지 단 2승만을 남겨놓게 됐다.

/이국현기자 sg0403@

프로농구 전적 24일

우리은행	17	12	13	26	68
하나외환	13	14	17	19	63